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양희은 . 강석우입니다

이달의 편지
서로의 빛 갠기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하하하 웃음이 절로 나오는 곳

2015 February **02**





히히히 웃음이 절로 나오는 곳

경북 영주시 순흥면 '히히히 분식점' 김명신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에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여기저기 고개만 돌려도 눈 안 가득 사과나무가 들어오는 곳, 경북 영주시 순흥면의 '히히히 분식점' 안은 아이들이 품어 내는 웃음으로 가득하다.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서자 "히히히 까르륵 히히히" 웃음이 먼저 손님을 맞는다.

여성시대 가족 김명신 씨가 보낸 편지 첫머리는 이러하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행복한 아이들을 매일 보고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접시 가득 떡볶이와 튀김, 김밥과 어묵을 담아내는 손이 분주하다. 김명신 씨가 '히히히 분식점'의 주인이 된 지는 이제 갓 일 년째다.

분식점 앞으로는 '소수중학교'가 옆으로는 '순흥초등학교'가 나란히 어깨를 마주대고 있다.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집에서 나와 분식점 문을 연다.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이 더러 있어 아침밥을 거르는 아이들이 꽤 있다. 아침밥을 못 먹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걱정인 김명신 씨는 새벽에 나와 김밥을 만들고, 밥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밥튀김을 튀겨낸다.





소수중학교 학생은 37명, 순흥초등학교 학생 50명이 전부이니 아이들 이름은 물론이고 뭘 좋아하는 지도 다 알고 있다.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 그 자체입니다. 그 예쁜 아이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입안에 넣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아이들을 유난히 예뻐하는 그는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수정이, 다정이, 웅이, 호정이 네 명의 아이들 입은 물론이고 순흥면 아이들의 입도 거의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공부도 채 마치지 못하고 객지 밥을 먹으며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던 효녀였다. 결혼 후에도 형편은 쉽사리 펴지지 않아 음식점 주방일, 어린이집 주방일, 학교 급식실을 전전했다. 음식을 다루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데다가 음식 만들기에 취미가 있는 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분식점 터를 잡아 주었다.

네 아이의 엄마인 만큼 신선한 국내산 식자재를 쓰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일까 늘 궁리를 한다.

수류탄이라 이름 붙여진 밥은 김치, 닭고기, 김, 마요네즈, 깨를 넣고 그 위에 달콤한 데리야끼 소스를 바른다.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다. 그리고 살만 발라낸 고기에 갖은 양념을 한 꼬치와 김밥

을 말아 치자 물을 섞은 밀가루에 바삭 튀겨낸 김밥말이도 아이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다.

김명신 씨는 요즘 새로운 메뉴 개발에 들어가 있다. 아직은 비밀이라며 돼지고기를 잘게 갈아 양념을 한 밥이 될 거라고 살짝 귀땀해 준다.

분식점이 잘돼 돈을 많이 벌어 좀 더 공간을 넓혀 책도 구입하고 책상도 더 많이 들여놓아, 아이들이 맘 편하게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쉬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게 그의 꿈이기도 하다.

김명신 씨는 늦은 밤 분식점을 닫고 집에 들어가 집안일을 다 마치고 나면 감사 일기를 쓴다. 7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내려간 일기다.

어제의 내용은 이러했다.

‘오늘은 가게에 손님이 없어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가게를 열고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도 가게도 연탄을 갈아야할 만큼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도 그는 늘 감사하단다. 그 감사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건 그의 마음이 아이들만큼 순수하고 따뜻하기 때문이리라.





열두 달 중 가장 짧은 다리의 소유자인 2월은 그래서 더 마음이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 교육비도 미리 챙겨 놓아야 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어느 곳에 돈을 써야 하는 지 아랫돌 빼서윗돌에 어떻게 고일까 궁리를 하게 합니다.

‘겨울 속의 봄’입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생뿔 불어오지만 그래도 마음 저 밑바닥에서는 봄을 맞을 채비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나뭇가지마다 붉은 기운이 돕니다. 목련 봉오리가 봉긋해집니다. 제 철보다 먼저 핀 개나리가 애처롭기보다는 반갑기만 합니다.

요즘 방학을 맞은 어린 여성시대 가족들의 편지로 여성시대 우체통이 다 큰 때보다 더 활기칩니다. 또박또박 연필로 써 내려간 어린이들의 편지는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2015년 여성시대는 1년간 ‘행복한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캠페인을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일 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1월에는 ‘전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재기발랄한 생각이 담긴 편지들로 1월 한 달, 참 행복했습니다. 이번 2월에는 ‘학원 때문에 힘들어요’란 주제로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 공부로 힘든 어린 학생들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든 부모님들의 사연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도 어린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짧은 다리의 2월이라 더 종종걸음을 해야 하는 여성시대 가족들 다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달의

편지

- 10 서로의 빛 값기
- 15 취중진담
- 20 마음대로 안 되네요
- 23 불로중학교 2학년 9만 아이들에게
- 27 첫차에서 만나는 사람들 31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34 딸의 재수와 가장의 걱정 38 고마운 아내에게
- 42 부끄러운 반성 45 최고의 사랑 47 아내는 작은 거인
- 49 북에 있는 형제들 만날 날은 언제인지
- 52 후회 없는 삶 56 난 패륜아다
- 60 마음만은 부자





Letter 1

서로의 빛
갚기

김광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저는 택시 기사입니다. 며칠 전,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차량정비소입니다. 저번에 고객님의게서 저희 가게에서 차를 수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작년 여름인가 그때쯤에 한번 차를 손본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느 부부가 와서 아저씨를 뵙자고 해서요. 아저씨 휴대폰 번호를 잊어버려서 직접 찾아 왔단니까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일을 좀 더 하고 차량정비소에 갔습니다. 정비소에는 아이를 안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와 저의 인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여름, 마포 인근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제 차를 뒤에 있던 화물차가 받아버렸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 충동로 저는 운전대에 가슴을 부딪쳤고 목도 빠졌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제 차를 박은 화물차로 갔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는 겁먹은 표정으로 연신 “아저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몰라서 지도를 보면서 다니느라 그만... 아저씨 한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뿐이었습니다. 30대 정도의 사내가 울먹이듯 말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서, 일단 서로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로 얘기하자고 하고 보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기니 수리비가 37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에 가보니 목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정도였고 진료비와 물리치료비 등을 합치니 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비와 치료비를 말했더니 “네? 그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어휴...” 듣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가 되더군요.

측은한 마음에 사정을 물어보니, 지금 다니는 화물차 회사에 입사할 때, 사고가 나면 자신이 책임을 다 지기로 하고 취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스물아홉, 강원도 영월의 시골에서 올라온 지 한 달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택시벌이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리비를 받기 위해 화물차 기사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언덕 맨 꼭대기 동네로 가서, 포다시 좁은 비탈길을 올라가니 옷푹이 매우 세게 몰아치는 어두컴컴한 단칸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출산한 지 일주일 났다는 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화물 기사가 자기 집까지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한 이유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 한 대 없어서 그야말로 단칸방은 찜질방 같았지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서울에 돈 좀 벌해보려 올라 온 이 화물차 가족에겐 그 차 한 대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방세며 출산한 아내며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에도 급급해 보였습니다.

출산한 화물차 기사의 아내는 “아저씨, 저희 한번만 봐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몸이라서, 몸조리 끝나면 다니던 식당에 가서 일해 갚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화물차 기사도 무릎을 꿇고 “제가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아저씨!”라고 반복해서 말하더군요. 그 부부는 돈을 구하러 다녔으나 구하지 못했고 돈을 갚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어 경찰서에 가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의 모습과 아기 울음 소리가 마음에 걸려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근처 시장에서 쌀 20kg과 소고기 한 근, 미역 한 단을 사서 다시 단칸방으로 찾아 갔습니다. 시장에서 산 것들과 그날 번 제 일당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기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그때 차를 수리했던 정비소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달려가 보니 그 화물차 기사 부부는 예전보다 제법 볼에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다행히 택배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부인은 족발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여 저녁 늦게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기 아빠가 아이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빚을 갚으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 부부가 내미는 돈을 차마 받을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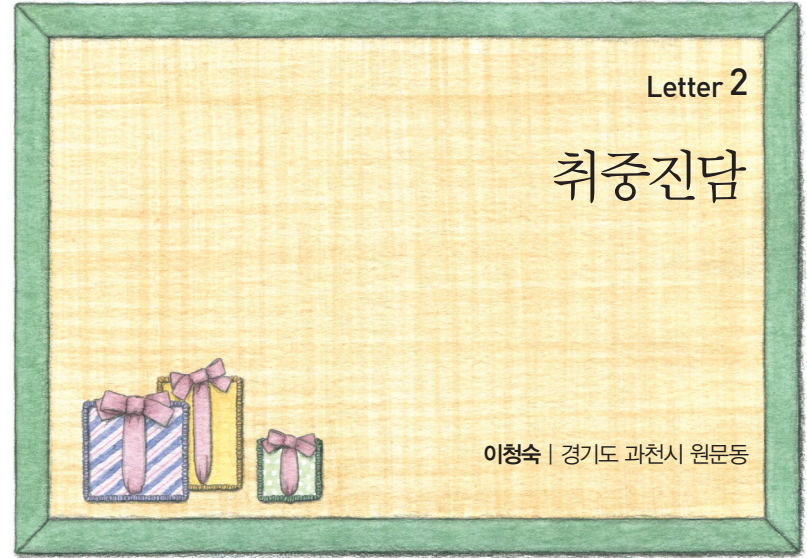
“아저씨, 됐습니다. 내가 애기 키워봐서 아는데 애기에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을 거예요. 받은 것으로 칠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 넣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돕는 게 제 빛을 갚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쇠사슬처럼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도 개인택시 운전사가 되어 수원으로 출고한 택시를 가지러 가다가 그것도 임시 넘버를 단 차량을 몰고 가다가 기쁜 마음에 똑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월세를 살면서 아내랑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따고 그 면허를 담보로 택시를 구입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다른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를 냈으니 많은 돈을 준비해야 했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제 사정을 알고는 선처를 베풀었고, 한 달 후에 개인택시를 통해 번 돈 전부를 들고 갔지만 모두 사양하고 다 잊었다고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돕는 게 제 빛을 갚는 겁니다”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사람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가 다른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화물차 기사 아저씨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것뿐입니다. 이 화물차 기사 아저씨도 나중에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겠죠. 그때 이분도 저처럼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돕는 게, 빛을 갚는 것’이라는 교훈을 실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 돈이 질게 내려앉은 시각,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내 귀가 쫑긋해진다. 그제야 남편이 들어 왔음에 안심을 한다. 얼굴을 살피며 “한잔 했네요?” 했더니 아니란다. “얼굴 보니 한잔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내 말에 손사래까지 치며 아니란다. 그러더니 “이 시간까지 한잔만 했겠냐? 두 잔, 세 잔까지 했지”라는 남편의 농담에 피식 웃고 말았다.

내 결혼 첫째 조건이 술 많이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바라는 마음과 반대로 만나진다는 말이 맞는 듯하다. 그이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아는 아줌마의 주선으로 양쪽 어머니들의 권유에서였다. 첫 만남이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고 무척 편안한 느낌이었다.

그이의 직장은 서울에 있었고 난 부산에 있었기에 자주 만나기 힘들어 우린 전화통화로 연애를 시작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이어지는 짧은 만남 속에서 그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더욱 커졌다.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밤마다 전화로 달래기를 여러 달, 어느 날 그는 보내지 못한 편지를 전화기에 대고 나직한 목소리로 읽어 주었다.

“...이런 만남을 통해 서로 좋아할 수 있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상대방의 변화 속에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지상에서 고귀한 만남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지...”

그러던 어느 새벽에 그가 만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을 전했다. 그날 밤 들뜬 기분에 자는 동안 마는 등하고 다음 날 아침 전화를 했더니 그는 내게 전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 순간은 정말 실망했다. 고민하던 나에게 그는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을 했다.

“니 나한테 시집오면 안 되겠나?”

그이는 나에게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멧없는 프리포즈를 했다.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는 날, 아버지는 해외에 나가 계셨기에 형부와 오빠가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고, 어머니는 귀한 손님이 왔으며 아끼던 양주 한 병을 내놓으셨다. 형부는 몇 마디 물어보곤 편한 자세로 한잔하자 했고 세 사람은 주머니 받거나 술을 마셨다. 그는 긴장한 탓인지 부어 주는 대로 술잔을 비우더니 끝내 그 독한 술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나보고 장모님께 술 한 병 더 갖다 달라고 하라며 술상을 치우고 고스톱을 치자는 거였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말이다. 취한 그를 달래서 데리고 나가 택시에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주고 왔다.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가야 할 그는 몇 번이고 전화를 했다. 어머니는 어디가 마음에 드셨는지 나가라고 부추겼다. 안절부절못하며 기

차 시간을 늦추겠다는 그를 만류했다. 올라간 그는 매일 퇴근길에 공중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어느 금요일 밤에 전화를 해서는 “정말 보고 싶다”며 토요일에 무조건 올라오라고 했다. 마중 나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토요일에 열차표는 매진 되어서 하는 수없이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나와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회사로 전화를 했다. 지금 막 퇴근하려던 참이었다고, 그는 내게 전화한 기억이 없다며 바로 마중 나온다고 했다. 기가 막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무작정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저런 사연으로 다투고 빠지면서도 우리는 햇살이 뜨거웠던 여름날에 처음 만나 하얀 겨울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정말 술이 문제였다. 언젠가 남편이 술을 엄청 마시고 전화를 해서는 “난데, 여기가 어디지?” 한다. 아니 내가 물어야 할 물음을 남편이 묻는데 어이가 없었다. 술이 엄청 취한 모양이었다. 그 주위에 뭐가 보이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엉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아마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잘못 내려준 모양이었다. 남편과 계속 같은 말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서 “알아서 잘 찾아와!” 하고 끊어버렸는데 우리 아파트 근처였는지 헤매다 들어오긴 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웬 남자와 같이 우리 집 아파트 입구까지 와서는 술 한잔 하고 가라는 걸 그분은 뒤통을 하며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마침 경비 아저씨가 그 광경을 보고선 우리 집으로 인터폰으로 연락을 주셔서 뛰어 내려갔다.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 명함까지 주고받으며 그분은 끝내 돌아갔다. 난 고개를



폭 숙여 정중하게 인사까지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남편은 주머니에서 나온 명함을 보며 “누구지?” 하는 것이었다. 간밤에 함께 왔지만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른다는 그 모습에 헛헛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밤늦게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몇 명이 출발하니 술상 준비해 달라’는 말에 정신없이 안주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 2, 3차를 우리 집에서 마시니 그나마 남편의 술값 아꼈다고 위안을 삼았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우리 부부는 결혼 22주년을 맞았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아파서 응급실로 두 번이나 실려 갔었는데 그 후로 건강을 생각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직장 다니면서 술을 끊을 수는 없고 적당히 마시면서 늦어도 밤 12시까지에는 꼭 들어온다. 안 그럼 다음 날 새벽 일찍 출근하기 힘들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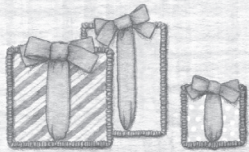
몇 년 전부터는 나에 대한 고마움도 알았는지 결혼기념일에 보내 온 꽃바구니 리본에 쓰인 글귀가 ‘너는 내가 책임진다’ 아니면 ‘고생 많다, 사랑해!’였다.

22년 동안 늘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새벽밥을 차렸다. 술을 많이 마시다보니 누룽지 물을 끓여주거나 해장국을 자주 끓였다. 작년에 승진하면서 건네 준 편지에 ‘다 너 덕분이다’는 말에 속상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 사그라졌다.

그때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 속에서 그의 진실됨을 믿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다.

오늘 새벽에도 독배기에 밥을 해서 남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 줄 구수한 누룽지 물을 끓이고 있다.

Letter 3

마음대로
안 되네요

서미경 |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올 해로 결혼 6년 차인 아산 사는 중고새댁입니다. 2010년 결혼 후 아기를 갖고 싶어 한약도 먹어보고 병원 검사도 해보고 올해는 인공수정까지 했습니다. 휴~ 그런데 정말 아기 갖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최근에 임신테스트기에 보이는 선명한 두 줄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도 기뻐했는데 제 눈에 어느새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난생 처음으로 보는 두 줄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 기쁜 마음을 진정시키며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 결과 아직 아기집이 안 보인다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피검사를 하면 임신 여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에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고 집에 와 기다리

고 있는데 그 6시간이 마치 6일은 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임!신!임!니!다!”라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남편도 떨 듯이 기뻐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집안 어른들께 알리고 축하받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절망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이틀 후 저녁 7시부터 배가 슬슬 아파오는 데 좀 있으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배는 점점 더 아팠습니다. 8시쯤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야속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진료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알아보니 15분 내에 빨리 와야 한다고 해서 서둘러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배에 피가 고였고 자궁외임신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모든 게 원망스러웠지만 숨 쉬기조차 어려워지며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응급수술을 한 후 깨어보니 온 몸이 떨리고 춥더군요. 남편이 이불을 덮어주고 찜질팩도 올려 주었지만 온몸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제 상태에 대해 알려주시더군요. 배를 열어보니 난소에 있던 물혹이 터져 출혈이 생겼고, 지금 추운 건 출혈이 심해서 그런 거라고 자궁외임신은 아닌 것 같지만 정상적인 임신도 아닌 것 같다는 말에 잔뜩 긴장을 했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한 피검사 결과와 초음파 결과 저는 화학적 임신을 했던 거고 피검사 수치가 안 떨어지면 수술을 통해 자궁 안을 긁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학적 임신이란 소변 검사나 피검사로



임신이 확인되었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에 유산된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겁이 나, 수술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도 제 맘대로 되지 않더군요. 또 한 번의 수술을 하고, 기분이 땅바닥 아래 지하로 한 없이 가라앉는 것 같더군요. 동생들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인공수정을 실패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퇴원해 집으로 왔지만 지금도 몸과 마음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와 있을까요?

Letter 4

불로중학교 2학년 9반
아이들에게



임정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저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불로중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06년 경기도에서 임용에 합격하고, 작년에 육아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자 인천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저희 집은 송도인데 같은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30분, 자가 운전을 하면 1시간 20분이 걸리는 정말 끝과 끝인 곳입니다. 4년의 길고 긴 육아 휴직을 마치고 재작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복직을 해서 그런지 재작년 한 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중2병에 제대로 걸린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너무 바빠 그랬는지 저도 복직하고 적응하느라 그랬는지 힘든 줄도 모르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은 후 만난, 작년 저희 반 아이들



은 참 바르고 예쁜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과 함께한 1년은 제겐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반 아이들이 어느날 제게 정말 크나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그날은 학급의 날로 학급별로 특성 있는 체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반은 옷놀이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4교시 종이 울리고 옷을 챙겨 교실로 갔는데 교실에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평상시 착하긴 하나 순진무구한 아이들이라 ‘옷놀이 하러 운동장으로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부리나케 운동장으로 갔는데 운동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임 시간인데 교과 시간이라 착각하고 미술실이라도 갔나’ 싶어 시간표를 확인하러 교실에 다시 가보니 칠판에 ‘음악실로 오세요’라고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음악실로 올라가 살펴서 문을 여니 27명의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질 바라보고 있고 반장 아이는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케이크에 불을 끄니 음악실 정 가운데 제 자리를 마련해 놓고는 동영상 틀어 주더라고요. 그 동영상에는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민이의 피아노 연주와 정인이의 기타 연주가 계속되었고, 마지막으로 반 아이들이 함께 불러 준 노래... 교직 생활하며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리라 다짐하며 눈물에 인색하던 저였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이벤트를 위해 2주 전부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의 양해를 얻어 조금씩 준비했던 거였더라고요.

까불까불한 것 같지만 무슨 일을 시키던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내던 수환이, 듬직하고 멋진 외모로 여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던 상남자 보선이, 축구를 잘하는 밤송이 예찬이, 추운 겨울에도 꿇어오

르는 열정으로 겉옷도 입고 다니지 않던 익현이, 차분하고 착실한 깔깔이 정민이, 급식 시간 양손을 이용해 밥을 먹어 늘 먹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정인이, 주변 정리는 안 되지만 착한 지성이, 늘 칠판을 반짝반짝 닦아준 선우, 1년간 성실하게 우리 교실의 분리수거를 도맡아줬던 윤철이, 교정기를 끼고 살포시 웃어주던 미소남 윤호, 부반장으로서 반장을 도와 열심히 일해 준 문식이, 12월 말일 밤 10시에 태어나 2시간 만에 두 살이 됐던 하랑이, 큰 덩치와는 다르게 수줍은 듯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대현이, “안녕하십니까?” 하며 늘 장난꾸러기 모습을 보이던 현석이, 어찌 보면 철학적이고 어른스럽지만 칠판에 마구마구 손바닥을 찍는 등 귀여움도 함께 있던 재성이, 천상 여자인 너무 착한 소희, 백설공주 같이 하얀 얼굴에 까만 눈에 빨간 입술을 가진 예슬이, 늘 동생 챙기느라 아침마다 힘들었던 착한 혜빈이, 지금까지 함께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해준 서연이, 단발머리는 안 어울린다고 툭툭거렸지만 누구보다도 예쁜 세현이 그리고 1년 동안 반장으로서 너무 너무 고생한 해피 바이러스 소영이, 백옥 같은 피부와 작은 얼굴이 매력적인 지은이, 1학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예지, 태권도 잘하는 멋진 우리 반 서기 휘나, 늘 친구들 챙기느라 바빴던 은숙이, 늘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던 모범생 보윤이,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모든 것이 궁금하던 주영이까지 27명의 이 아이들과 함께한 1년은 저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교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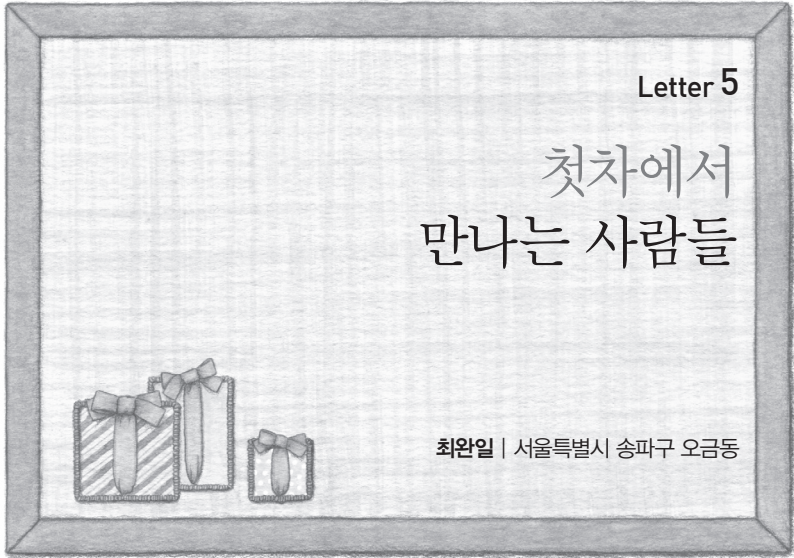
“애들아, 3학년이 돼서도 지금처럼 바르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기 바라며 선생님이 많이많이 응원할게. 사랑한다, 내 자식들...”

앞으로 늘 초심 잃지 않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아



이들이 함께 불러준 노래 가사는 개그콘서트 'Let it be' 버전입니다.

1. 2학년 9반 처음 만난 날 서로 어색했었죠.
 첫날부터 복장, 화장 다 걸렸죠.
 선생님 성격 너무 깔끔해 우리 생각했었죠.
 우리 담임 쌤은 최소 결벽증.
 결벽증, 결벽증, 결벽증, 결벽증. 1년 동안 담임 쌤한테 시집살이.
2. 드디어 다가온 체육대회 종합우승했었죠.
 공부는 바다, 체육은 탑클래스.
 4대 1로 지던 발야구, 4대 4로 잡았죠.
 우리 반의 우승 비결은 가위, 바위, 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사실 진짜 우승 비결은 남자애들.
3. 즐거웠던 축제, 삼겹살, 오코노미야키도
 마지막에 오니기리도 재밌었죠.
 그러나 다가온 중간고사 모두 열심이었죠.
 그래서 결과는 1등 뒤에서,
 꼴등, 꼴등, 꼴등, 꼴등, 그냥 우리 반은 체육만 할래요.
4. 훌쩍 지난 2학년 9반 사건, 사고 많았죠.
 그래서 선생님과 우린 멀어졌죠.
 그럼에도 선생님은 우릴 놓지 않았죠.
 오히려 더 짝 잡아줬죠. 지방처럼.
 선생님 고마워요. 1년 동안 지켜줘서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선생님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릴 봐요. 쌤 사랑해요.



저 는 오금동에서 청량리를 운행하는 서울 시내버스 3216번 운 전기사입니다. 첫차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모시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운행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종일 열심히 승객을 나르던 버스는 밤 0시 50분쯤 종점에 들어옵니다. 이게 막차입니다.

우리 회사는 6개 노선의 초록버스를 운행하는데 모두 4시 30분이 첫차입니다. 첫차 운행은 환승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중간 중간의 정류소 시간과 회차 지점 시간을 잘 맞춰서 운행해야 합니다. 저는 손님들이 다른 버스에 잘 환승하시도록 신경 쓰며 20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운행 중 가장 기분 좋은 때는 첫차 운행 때입니다. 정류소에 도착하면 웃음 띤 표정으로 올라오시면서 “기사님, 아무 일 없었지요?” 다정하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추운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뇨, 방금 왔어요.”

그렇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으십니다. 떡전교 정류장에서는 7~8명이 첫차만을 타시는데 카드 찍는 뽁 소리와 함께 인사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엉거주춤 앉으시며 고개 돌려 옆 사람 뒷사람과 전날의 뉴스나 날씨로 인사하며 버스 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집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다시 또 내일의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의 일터로 씩씩하게 가십니다. 어떤 손님은 내리실 때 운전석까지 와서 “수고하셔요”라는 말을 하고 가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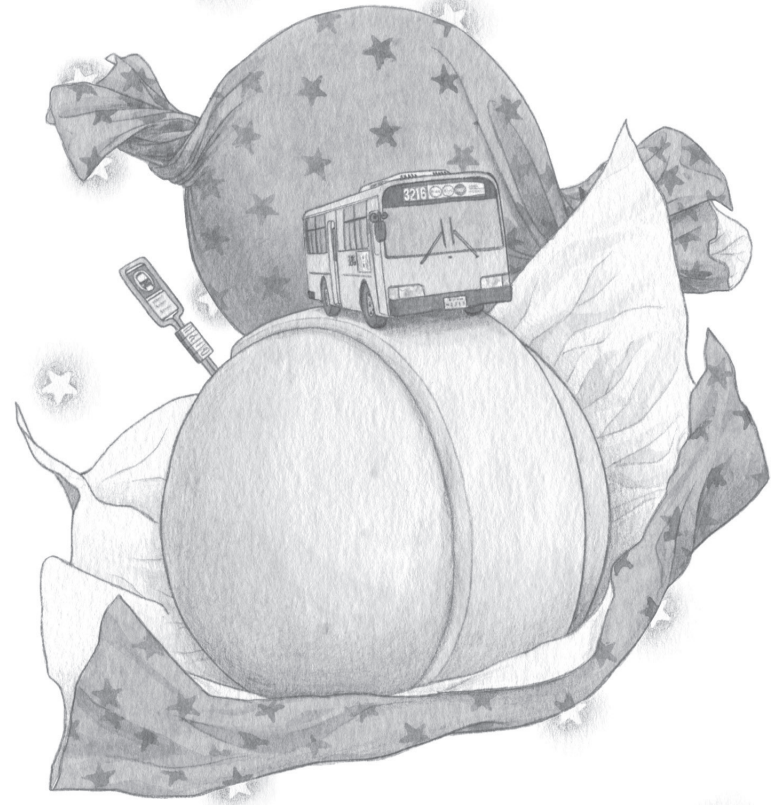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손님의 “수고하셔요”라는 인사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3년 전에 경동시장에서 첫차만 타던 70대의 정정하신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안 보이셨습니다. 그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리번거리다가 출발을 했지요. 회사에 도착해서 전날 첫차를 운행한 동료에게 그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경동시장 할머니는 꼭 첫차를 타는데 요즘 안 보이시네? 그만 두셨나?” 하니 동료 말이 청소일 하시던 분인데 용역회사에서 이제 연세가 있으니 그만 쉬시라고 했으며, 긴 한숨을 쉬시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큰누님도 70세 나이에 새벽 청소 일을 다시 하십니다. 아들의 권유로 몇 달간 쉬었는데 일 안하고 놀다 보니 아픈 곳이 자주 생겨나서 자식에게 부담 안 주고 벌어서 용돈 쓰니 좋다며 일을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할머니께서 퇴근길에 제 차를 타셨습니다. 정말 반기웠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첫차에 안 보여서 그만 두신 줄 알았어요.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아녀요. 며칠간 병원 다녔는데 지금은 다 나아서 일 잘 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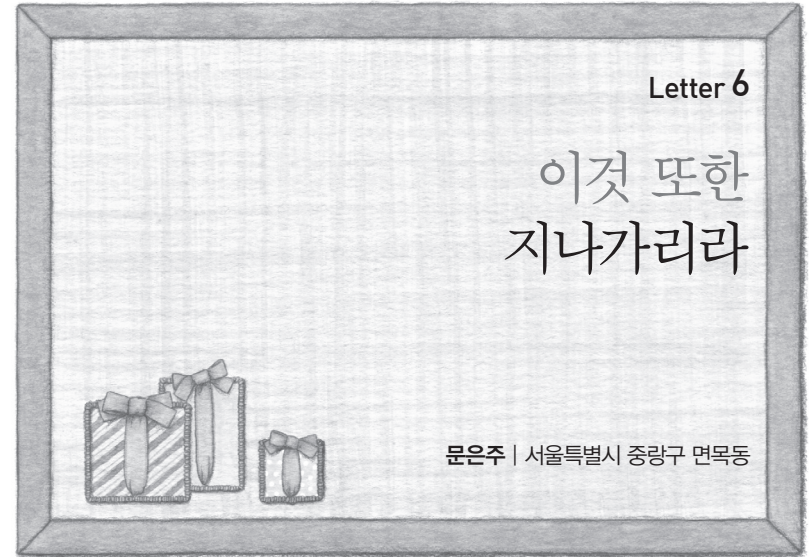
“예, 기사님도 건강하셔!”

그리고 바로 오늘 할머니님이 퇴근길에 제 버스를 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움에 인사를 드리니 할머니는 “하이고~ 기사님, 아무 일 없었지요?”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사고 없이 잘 운행을 했다고 물으신 거겠죠.

“예, 건강하시지요?”

할머니의 안부를 여쭙고 있는데 할머니는 사탕을 한주먹 건네주셨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 고마움에 사탕을 하나 까서 입에 물었습니다. 사탕의 단맛을 느끼며, 열심히 사시는 할머니의 근면성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 모습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결혼기념일의 노래>가 홍민 씨의 굵은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며 운행하길 다짐하며 차창으로 파스한 햇살이 비치는 확 트인 잠실대교를 콧노래로 따라 부르며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군자교 정류소에서 130번 버스로 환승하려고 내리셨습니다. 백미리에 비친 할머니님은 하얀 머리에 허리가 약간 굽으신 몸으로 제 차를 향해 손을 흔드십니다. 다시 만남을 기약하며 저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19년째. 이제 나에게도 갱년기 증상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공연히 허전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니 “너, 버킷리스트라는 거 한번 써봐라” 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는 이 버킷리스트를 적다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13번까지 적고나니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 13가지 중에 하나가 며칠 후에 있을 내 생일에 나를 위한 반지를 하나 만드는 일이었다. 내가 가진 14K 금반지 몇 개를 모아 아무런 무늬가 없는 민자형 반지를 만들어 끼고 싶었다. 세공은 남편이 아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면서 내 생애 43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반지에 새길 좋은 글귀가 없을까 생각하게 됐다. 한참을 고민

하던 중, 다윗 왕이 세공사를 시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글귀를 써오라”는 명령에 고민하던 세공사가 당시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에게 찾아가 물어서 써줬다던 그 글귀가 문득 생각이 났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글귀를 반지 안쪽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반지 완성을 앞둔 3일 전, 남편이 전화로 “여보, 이 반지에 애들 이름이랑 내 이름도 넣을까?” 물었다. 순간 끔찍했지만 마트 보너스 적립금까지 기억해내며 뒤끝작렬인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침한 번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만일 싫다고 하면 남편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을 잡고 “당신, 그때 그 반지에 왜 애들이랑 내 이름 안 넣었어?” 하며 피를 말릴 사람이다. 나는 최대한 싫은 티 안나게 목소리 톤 흔들리지 않고 “그... 그래...” 허락을 했다. 이젠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애들 이름이니 괜찮겠다 싶어 허락을 했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내 8번째 버킷리스트인 나를 위한 반지를 어제 받았다. 그런데 반지를 찾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다. 현관문을 소리 나게 팡 닫고 들어오더니 내 반지 케이스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놓으며 빨난 황소처럼 씩씩거렸다.

“당신, 이러려고 반지 한 거야? 이게... 이게... 당신 진심인 거야?”
 한참 동안 나를 찌려보더니 씻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서도 우당탕탕 요란하게 신경질을 부린다. 들어가서도 뭐라고 혼자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화장실 문밖까지 들렸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며 반지 케이스를 열어 반지를 꺼냈다. ‘아니, 이게 어쨌단 말이야?’ 하며 반지를 끼기 위해 반지를 보는 순간, 안쪽에 새겨진 글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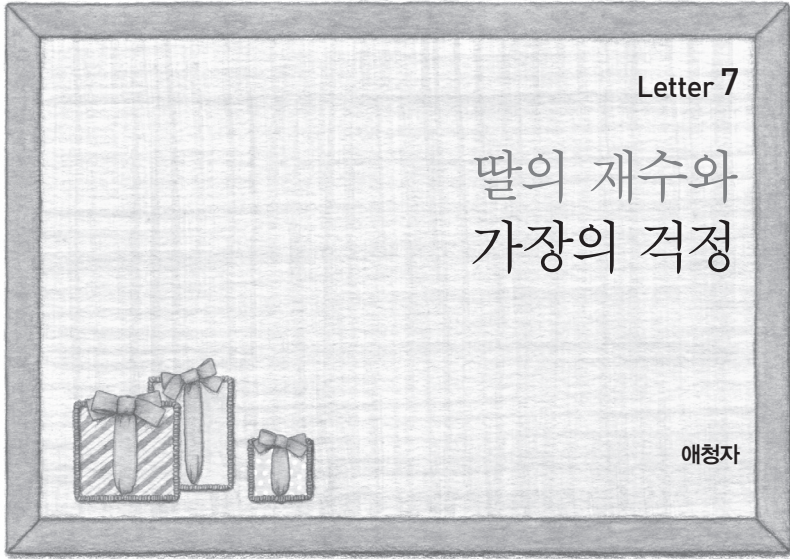


가 눈에 들어왔다.

〈승현, 재원, 세림 -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그 글귀를 보니 남편이 화날 만도 하다 싶었다. 반지를 끼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여보, 미안해.”



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샐러리맨이다. 작년 수능시험은 물수능이니 변별력이 떨어지느니 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다. 난 고3 수험생과 고1 딸을 둔 학부모로서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수능이 쉬워서가 아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하지 못한 고3 수험생 딸이 정시에서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되면 재수를 하겠다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재수를 하건 대학에 입학하건 걱정이 앞선다. 대학등록금, 용돈, 하숙비, 거기에 둘째 딸 학원비까지, 무슨 돈으로 뒷바라지해야 할지...

난 직원 90명 되는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연봉 5,100만 원에 월 수령액은 4대 보험 제하면 380만 원 정도이고 두 딸 교통비, 보충수업비, 점심·저녁 급식비, 문제지 값, 학원비,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120만 원 정도 남는다. 여기에 보험·적금 40만 원, 내 용돈 30만 원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내 용돈 30만 원에서 보험대출금 이자, 핸드폰 요금을 내야 하니 축의금, 부의금 내는 달이라도 있으면 그달은 마이너스가 된다. 대기업이나 공사, 은행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직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등록금 지원, 복지카드 등은 내겐 먼 나라 이야기이다.

사장님은 운영자금이 넉넉하지 않아도 가족 같은 분위기, 사람 냄새 나는 분위기가 되도록 여건이 되는 한 베풀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다. 법인 통장을 봐도 원재료비, 물류비, 세금, 급여 등 결제대금 지불하고 나면 그달 운영자금 정도만 겨우 남는다. 월급이 제 날 짜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집사람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한다. 교통비, 4대 보험 제하고 받는 돈은 80만 원 남짓 정도다. 그동안 모아 두었던 현금도 다 지출하였다. 전세자금 대출과 2천만 원 정도 되는 마이너스 신용대출이 있다. 이제 신용대출 한도 초과라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서민들이 비싼 이자 부담하면서라도 사금융으로 달려가나 보다.

딸이 대학 합격을 해도 무슨 돈으로 등록금을 해결해야 할지 답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면 이사를 가서 신규 대출로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 운 좋게도 집주인을 잘 만나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너무 고맙다. 그래도 월셋집으로도 이사해야 할지 결정이 서질 않는다. 내 나이 오십이 넘도록 이렇게까지 밖에 못 살았나 자책도 해본다.

언제부터인가 회사 회식자리에도 참석하기가 겁난다. 1차는 회사 카드로 부담하지만, 동료들이 2차라도 가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 지



갑에 만 원짜리 1장, 천 원짜리 몇 장이 전부다. 부하 직원들은 이제 2차 가지는 말도 안 한다. 내 주량이 소주 두 잔 밖에 안 되어 원래 술자리 싫어하는 걸로 생각해 주겠거니 하면 마음이 편하다.

집사람은 20만 원 넘는 물건을 사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12개월 할부다. 물론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없고, 해외 여행도 간적이 없다.

정부 발표를 보니 사교육비가 1인당 평균 15~2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런 학원이 정말 있다면 나도 보내고 싶다. 물론 과외 선생님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 과외는 70~100만 원, 둘이면 50만 원, 3~4명이면 35만 원 정도이다.

딸은 말한다. 같은 반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국영수 과목을 일주일에 2번씩 과외를 받는단다. 나는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차다. 딸의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딸이 고맙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보이지 않는 적막함으로 가득 차 있다. 소득을 늘리기는 어렵고 지출을 줄이는 전략밖에 없다. 답은 하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뿐이다. 나중에 자식한테 부모가 뒷바라지 잘 못 해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원망을 들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학교 탓만 할 수도 없다. 성적이 좋다고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공부 이외에도 대학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 등 그 과에 진학하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무슨 준비를 하였는지 자술서에 일일이 적어야 한다.

입시제도, 너무 복잡하다.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 부모의 정보력과 뒷받침 없이 학생 혼자서 원하는 대학에 붙는 건 불가능한 현실 같다. 그래서 다들 특목고, 자사고 입학한다고 악을 쓰나 보다. 방송

에서는 해마다 대학 수석 합격자 인터뷰를 보여준다.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하고 사교육 받지 않고 혼자 공부했다. 이 말을 누가 믿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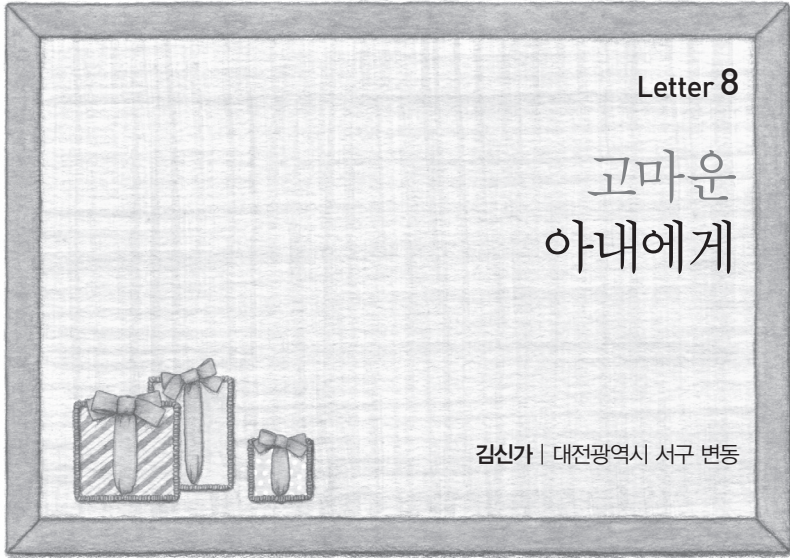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물류센터에서 투잡도 해보았다. 여덟 달 동안, 밥잠 4시간만 자면서 일해 보았다. 그러면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손에 쥌 수 있다. 하지만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

얼마 전 신문에 국내에 수입된 고급 패딩 점퍼 대부분이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특히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캐나다 거위털 제품 역시 100%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을 섞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점퍼 하나의 가격이 몇 백만 원 한다. 말이 안 나온다.

구두가 많이 낡았다. 세일 기간에 백화점에 가보았다. 그래도 너무 비싸다. 그냥 돌아가려는데 집사람이 왜 안 사냐고 한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둘러대고 집으로 왔다. 회사 근처 마트에 가서 6만 원짜리 구두를 구입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자영업 사장님 시절도 있었는데 좋은 시절에 왜 돈 관리를 못했을까, 씁쓸하다.

노후 설계라는 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다. 경기는 바닥이라고 다들 난리다. 그저 회사에서 명퇴 당하지 않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들 한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보아야지, 다짐해본다.



저는 대전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저는 여성시대를 청취하는 모든 분들 앞에서 저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미래를 다짐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고아로 성장해서 유년시절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인 충남 서천에서 장항선 서울행 기차에 무임승차로 몸을 싣고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그때부터 신문팔이, 껌팔이, 우산 장수, 구두닦이 짝새 등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술과 담배를 배웠고, 집단 패싸움에 가담하여 서울소년원과 광주소년원을 드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소년 교도소까지 들어가 복역생활을 하고 출소하면 또 술에 절어서 끊임 없이 방황하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지체 없이 흘러 어느덧 나의 인생의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었지만, 저의 삶은 조금도 변한 것 없이 알코올중독에 천덕꾸

러기였습니다. 그러다 1994년 겨울 어느 날, 서울 남대문시장 앞을 배회하던 중 식당 종업원을 소개하는 아저씨들로부터 숙식이 제공되는 중국집에 취직할 것을 제의받았고, 그 길로 중국집에서 수타면과 요리를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5세이던 1996년 12월 25일,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아가씨를 사귀다 아이를 임신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는 못된 생활습관과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흥청망청 생활했고, 걸핏하면 술 마시고 싸움질이나 하는 한심한 남자였지요. 동거생활 하는 아내와 딸은 뒷전이었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천덕꾸러기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고 헤어졌지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술 마시지 않고 싸움질 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서 다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혼 그리고 다시 재결합을 했지만, 몇 달 못 살고 2008년 마지막 세 번째로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아내와 나서는 순간,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냉정하게 떠나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약 6개월 동안 거의 술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아내와 세 번째 이혼한 그해 11월 10일, 포장마차에서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 일행들과 다툼 끝에, 저는 상해치사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저는 4년이란 형기가 확정되어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년 동안 정신분열 약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올바르게 못하고 비인간적으로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거듭 돌아보면서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차가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내에게 수차례 참회의 서신을 보냈으나 수감생활 3년에 접어들 때까지 그 누구도 접견이나 서신을 나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간답지 못하고 미천하게 살아왔던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감생활 3년이 넘도록 접견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저에게 놀랍고도 반가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혼한 아내가 면회를 온 것이었습니다. 면회시간 10분 동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동안 건강했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몇 년 만에 당신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밖에서 당신 술에 절어서 살 때 초췌했던 모습은 없고 이제야 사람처럼 보이네요.”

아내가 몇 마디 하는 것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마음만 정할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지난날 나에게 얼마나 환멸을 느끼고 미워하며 살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다가 면회시간 종료 벨이 울렸고, 한참을 그대로 엎드려 울고 있는 저를 교도관님이 들어와서 끌어내시더군요.

그동안 관내 법규를 준수하고 수용생활을 평범하게 잘해 왔는지, 덕분에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아내의 편지도 종종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모범수가 되어 2011년 12월 크리스마스 연말 특사로 가석방되어 12월 24일에 사회에 복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교도소의 마지막 통용문을 벗어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참회의 용서를 빌었고, 열심히 살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3년 7개월간의 형기가 끝난 2011년 12월부터 저는 아내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와 가정

생활 3년째인데, 술과 담배 모두 끊었고, 작년 12월에 아내와 네 번째 혼인을 하고 정식으로 재결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음식점 조리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의 법은 엄격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정이 매우 소중한다는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고, 더욱 알차게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추신. 저는 지금도 부족함이 많으나, 지난날 아내에게 몹쓸 짓만 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아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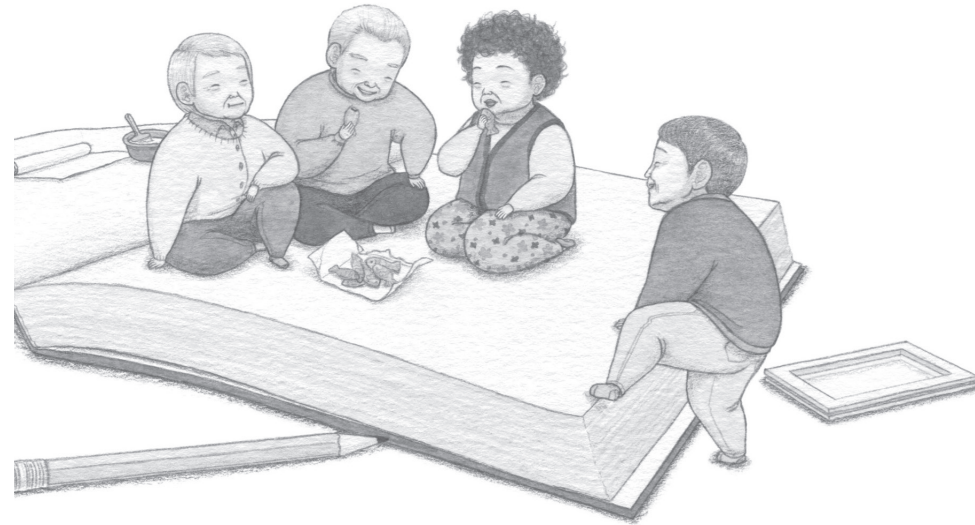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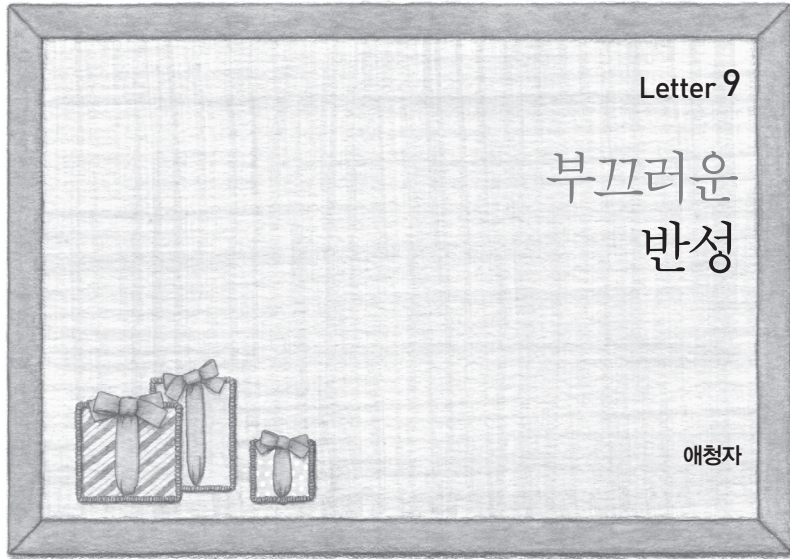
여보! 당신은 이 못난 남편 때문에 과거 가슴앓이 했던 상처를 언제쯤 말끔히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지금까지 무언의 눈빛으로 지켜봐 주었고, 환한 빛이 되어 주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등대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 곁에 있는 한 나는 사회의 엄격함을 항시 생각하며 나의 변화된 참모습으로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365일이 모두 당신의 귀 빠진 날처럼 늘 당신을 환하게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 당신의 남편, 김신가 드림



저는 MBC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시간에 <복지 사각지대 '세 모녀' 185만 명>이라는 뉴스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오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실내 인테리어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단열 및 창호 공사 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해서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줄여주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이 국민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이다 보니 사업을 시공하다보면 뉴스에서 인터뷰 한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사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독거노인분들이 사업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평

생 힘들게 자식 키우고 농사지으며 고생해서 남은 것이라고는 제대로 퍼지지 않는 손과 발의 뼈마디 그리고 처마 기둥 사이로 별들이 보이고 비바람 겨우 피해서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초가산간 흙집 하나뿐인 분들입니다. 이걸 그야말로 가혹한 현실이기에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 흙집이라도 본인의 소유라면 다행이고, 이마저도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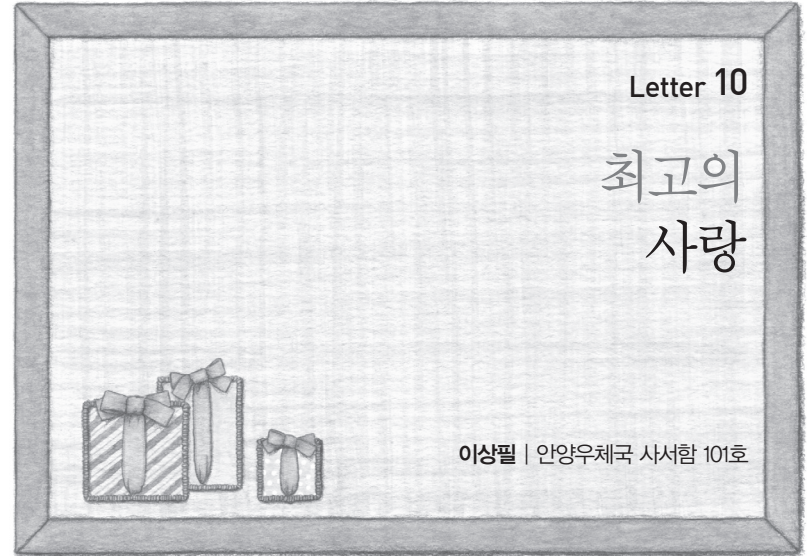
이런 분들의 집에 단열 및 창호 공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도배를 한 다음 세간살이를 원상복귀시켜 주는 것이 저희 일이다보니 도배 시공을 하고 방을 닦으면서 "어르신, 세간을 여기에 놓을까요? 저기에 놓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끄러운 반성을 매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매일 하루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신다는 것과 사람을 그리워하고, 누구와 같이 말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께서는 저 보고 “남편 따라 일하러 다니지 마! 나도 젊었을 땐 일이 무섭지 않았는데, 그렇게 일하다가 늙으면 남는 건 아픈 몸뚱아리뿐이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할아버지께는 제가 “어르신, 깨끗하게 신혼방 만들어드렸으니까요, 이번에 단풍놀이 다녀오면서 할머니 한 분 모셔오세요!”라고 했더니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밥은 밥솥이 해주는데 할망구가 왜 필요해? 혼자 사는 게 편해”라며 웃으셨습니다. 또, 어디서 멸절한 가구를 얻어다가 산골에 사시는 어르신께 갖다드렸더니 “내가 시집올 때 이런 장롱도 못 해왔는데 정말 고맙다, 고마워요” 하시며, 이렇게 고마운데 대접할게 없다며 꾀꾀 숨겨두셨던 소화제용 드링크를 내어주시던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제 인생의 선배이고 삶 자체에서 배운 것들을 나눠주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르신들께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오늘부터 추워진다는데 아픈 곳은 없는지를 여쭙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본인이 살아온 나날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의 일기장에 그분들의 삶을 빼곡히 적으며 저의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금을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아직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 인력 확보가 선행됐으면 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눈물을 흘치고 계신 어르신들께 제도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벌써 15개월째 아내의 편지를 받으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제소자입니다. 매일 아내에게서 온 편지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수고했어요”라는 인사말이 항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수고한 사람은 제 아내인데 말이죠.

제 아내는 제가 이곳 교도소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홀로 3살, 5살, 7살의 세 딸을 건사하며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액세서리에 큐빅 같은 것을 막고 조금씩 버는 돈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제게는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하곤 합니다. 그런 아내의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도 힘들지만, 밖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제 가족들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나 마음이 아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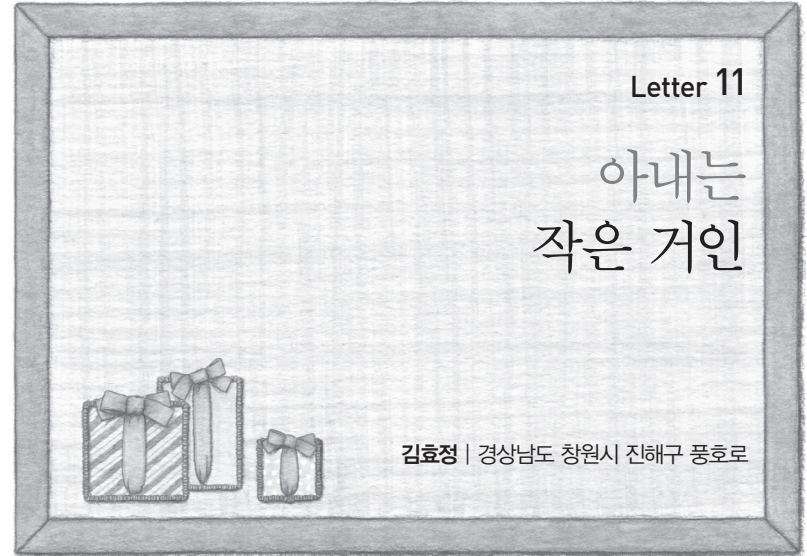
제가 이곳에서 만기 출소하는 날이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입니다. 그래도 큰딸의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벌써부터 설레기까지 하구요.

이곳에서 주마등처럼 스치는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나태하고 부끄럽게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출소해서 제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가 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테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사랑스러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딸에게 멋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저 하나만 바라보며 모질고 험난한 시간을 잘 견뎌준 아내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라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출소 후 아내를 꼬옥 안아주며 말입니다.

추신 : 저는 우연히 교도소에 들어와서 <월간 여성시대>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엔 너무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며 저 역시 변화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책 속에 너무나 많은 감동이 있고, 삶의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스물여덟 해를 기다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스물여덟 해를 살아 오다 보니 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었지라고 믿어 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의 인연이라면 외면하지 말고 받아 주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잡은 손 영원히 놓지 않고 마지막 다 하는 그날까지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단 한 사람이고 싶고, 끝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당신만의 한 남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1998년 바로 오늘,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여인의 생일을 맞아 제가 생활정보지에 글을 올려 마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제 모습은 과연 얼마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처음 고백할 때 설렘과 간절함을 지니고 있을까요? 결혼 14년 차, 아가씨 때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그냥 평범한 아줌마의 모습만 남아버린 나의 아내.



며칠 전 큰누님과 아내가 전화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제 가슴이 아파 오더라고요. 누님이 화장품 세트가 십만 원대인데 회원 가 월가로는 7만 원이니 하나 사서 보내주겠다면서 아내에게도 회원 가입하면 좋을 거라고 권했나 봅니다. 아내는 “저도 누가 권해서 그 제품 써 봤는데 부담도 되고 해서 지금 할인 코너에서 하나씩 사서 쓰네요.” 그랬더니 누님이 “그 정도도 부담이 돼?” 하면서 의아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아가씨 때 이름 있는 메이커 옷과 화장품을 썼는데, 지금은 단돈 몇 천 원에도 벌벌 떠는 아줌마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을 보니 자주 사용했던 것은 바닥이 보이고, 사용 안한 것은 가루가 되었네요. 립스틱은 얼마나 파서 썼는지 형태가 온데간데없고 온갖 샘플들만 가득합니다.

아내는 결혼 3년 만에 류머티스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몇 달을 고생했고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도 안 생겨 시험관 시술 세 번 만에 지금 일곱 살 아들, 딸 쌍둥이 엄마가 되었죠. 재작년에 일자리센터에서 전산, 세무 회계 자격증을 한방에 따서 이후 십년 만에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키 151센티미터에 몸무게 40킬로그램,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녀린 체격. 남편이라고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 왔다고 자부하지만 경제적으로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단 한번도 바가지 굽지 않고 살아주었죠. 저희는 혁신도시에 첫 우리 집을 장만해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사 갈 때 김치냉장고와 흙침대 꼭 사겠다며 자기 월급을 전부 적금에 붓고 있습니다. 전 이런 아내와 살고 있기에 행복하고 복 많은 사람이지만, 아내에겐 늘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Letter 12

복에 있는 형제들 만날 날은 언제인지



박옥화 | 대전광역시 계족로

저희 아버지는 평안남도가 고향으로 9남매의 여섯째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장사를 하셨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시장에 가서 18원을 주고 부인을 사 오셔서 혼인을 하고 아들 둘을 낳으셨답니다. 부인은 상냥하고 고우셨답니다. 그 당시에는 집안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규수들이 시장에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으면 돈을 주고 그 규수들을 사서 결혼을 하는 세월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세부터 30세까지 남자들은 군부대로 오라는 소집명령이 있어서 아버지는 집에는 부대에 금방 들어갔다 오겠다는 말을 해놓고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우다가 피난민 대열에 섞여 남쪽으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 28세로 두 아들의 나이는 4살, 2살이었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남쪽에 와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



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힘들게 사셨습니다. 벽돌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행상도 하시며 하루하루 끼니를 먹는 게 가장 큰일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닦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이북에 돌아갈 생각만 하셨습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던 중 1953년 휴전이 되고 이북5도민회가 결성되어 이북 사람들이끼리 하천 옆에 집을 짓고 살라는 정부의 결정으로 이북 사람들은 대전 피난민 수용소에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향수병이 심해지며 날마다 술로 사셨습니다. 하루 벌어서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며 고향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린 자식을 떼어 놓고 오신 것이 가슴에 한이 되셨던 겁니다.

그때 마침 이북5도민회에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짝을 지어 주었는데 때마침 인민군들에게 가족 모두가 사살 당해 혼자 된 어머니를 만나서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식을 올리셨습니다. 저희 5남매를 낳았고 제가 첫째 딸로 충남 대전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언제나 술을 마시고 고향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술을 드시면 저희들에게 이북에 너희 형제들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고모, 작은아버지가 거기 계시는데 왜 나만 이곳에 있느냐며 가슴을 치시며 낄두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통일이 되면 그곳에 가서 너희 형제들을 찾아보라 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한 많은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술을 드시던 아버지는 50세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임종의 순간 이북에 있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가셨습니다. 저희 5남매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홀로 남은 어머니의 나이 마흔네 살이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어머니가 시집을 가면 저희 5남매를 공부도 시켜주고 밥도 굶기지 않을 텐데라고 하며 어머니가 재가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시집을 갈까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5남매는 밤에 어머니 치마를 붙잡고 잠을 잤습니다. 행여나 어머니가 저희를 두고 시집을 갈까 봐서요. 어머니가 소변이라도 보려고 일어나면 저희는 모두 깜짝 놀라서 “엄마, 어디가?” 소리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내가 너희들을 두고 가긴 어딜 가겠니” 하며 저희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암울했던 시간들은 지나고 저희도 모두 장성하여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되고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던 가족을 아버지는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셔서 저희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그리운 가족을 만나셨겠지요.

저희 5남매 중 둘째와 막내가 부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남아 있는 3남매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북에 있는 저희 아버지 자식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서 아버지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을 만나야 하니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의 형제들이. 그런데 그날은 언제일까요?

Letter 13

후회 없는
삶

이은홍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저는 전자물류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가을부터 현장 부서로 옮겨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화이트칼라로 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어 달이 지나도 어디 한 군데 연락 오는 데가 없었죠. 이대로 포기해버릴까 싶은 마음도 들고, 길고 긴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밤새워 쓴 이력서를 여러 군데 보내기까지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여러 군데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더 좋은 직장



에 취직해서 고생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부모님을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야 저도 철이 들어가나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뒷전이고, 어머니께서 매달 주시는 학원비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끝없는 방황에 어머니께서는 학교로 학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서는 저에게 야단 한번 치지 않고 기다려주셨고, 아침마다 책상 위에는 제 마음을 돌리려는 어머니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쪽지를 볼 때마다 귀찮고 짜증나서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고 교복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학교 화장실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등갓길에 버릴까말까 하다가, 오늘은 또 무슨 말로 내 마음을 돌리게 하려나 궁금해서 어머니의 쪽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지금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느라 손에서 책을 놓았지만, 엄마는 믿는다. 어제는 담임선생님께서 뵙자고 하여 겁먹고 학교 갔는데, 선생님께서 은홍이는 머리가 멍석한 아이라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상위권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시더라. 선생님도 노력하겠지만 나에게에도 노력해달라고 하셨고, 네 칭찬을 많이 하시더구나. 놀만큼 놀았으니 이제는 학생 신분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엄마는 큰 욕심 없어. 그냥 네가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만 해줬으면 하는 거, 그게 작은 소망이란다.〉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새벽에 화장실에 가는데 어머니께서도 저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지 창밖을 내다보며 두 손을 모으고 서 계시더군요. 저는 그때 또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요. 저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 날마다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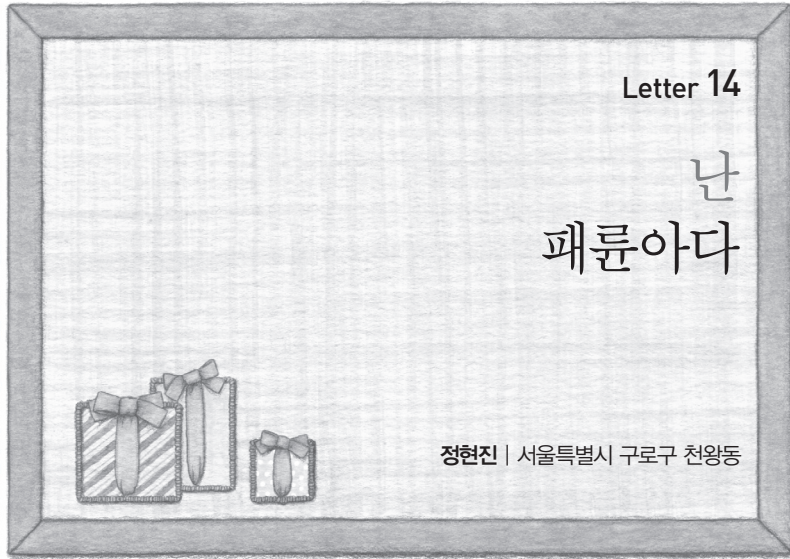
그 후로 제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 생각에 휴대폰에 손이 가면 그럴 때마다 30센티미터 자로 손바닥을 수없이 때리면서 “정신 차리자! 넌 이제 대학 가려면 공부해야 해!” 하고 스스로에게 벌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허나, 한없이 모자라는 점수 때문에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자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재수를 시켜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돌려준 아들이 눈물겹게 고마운지 열심히 해보라며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무지 속 썩인 못난 아들 재수 공부시키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두 개씩 싸느라 늘 피곤하신 어머니를 위해 꼭 성공하여 보답하겠다고 굳은 결

심으로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철없었던 지난 세월을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사무일이 제 체질이 아닌지 온몸이 쭈시고 변비까지 생겨 하루는 윗분께 현장으로 부서를 옮겨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남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는데 현장으로 보내 달라는 사람 처음 본다며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현장에서 일해 보고 답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현장에 갔더니 한 선배님께서 코팅 장갑을 건네며 현장 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일했지요. 제 키보다 높이 쌓여 있는 물건들을 한 치 오차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게차로 실어 차곡차곡 화물차에 싣기까지 몸은 힘들어도 재미있고 제 적성에 딱 맞는 현장 일터였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치고는 일을 잘 한다며 현장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어깨를 두들겨주는데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바쁠 때는 야근하는 날도 많지만 어느 한 사람 힘든 내색 않고 밝게 일하는 모습에 힘이 납니다. 또, 한 가족처럼 서로를 잘 챙겨주는 현장 분위기 때문에 일하는 내내 행복합니다.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단합 차원에서 술 한잔 기울일 때면 선배님들은 오늘 하루 힘든 일과 속에 서로 서운한 점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라고 합니다.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풀고 가라고 웃음꽃을 피워주시지요. 그럴 때마다 따뜻한 사무실을 떠나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추운 현장으로 부서를 옮기길 참 잘했다고 저 자신을 칭찬해줍니다.

오늘도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장갑을 두 켤레나 끼고 일을 해도 손끝이 시리다 못해 아리네요. 하지만 직원들과 함께라면 올 겨울도 건강하게 잘 견뎌내길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추운 현장에서 일하는 선배님 후배들 오늘도 파이팅합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우리 아버지는 단 한번도 내 입학 졸업식에 오신 적이 없다. 그런데 한 살 위의 형 입학, 졸업식은 온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친척까지 모여서 단체로 식사하는 날이었다.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교사가 꿈이었던 나는 국립 사범대에 합격했다. 그때 등록금은 12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집에서 등록금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형이 지방 사립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잘했던 나와 달리 공부를 못했던 형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당시 형이 다니던 사립대 학비는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엔 어마어마했고, 학교를 다니던 형이 나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학교를 포기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재수 후에 나는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학비도 싸고 장학금도 준다는 지방 전문대의 3년제 학과에 입학했다. 나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형은 2년 동안 대학에 다닌 후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자퇴했고, 집 근처 직업 전문학교에 입학했다. 형의 학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나의 등록금과 입학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학교 수업을 듣고,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13시간 30분을 학교 근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잠잘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이었기에 나는 대학교 생활 3년 내내 오리엔테이션, 개강파티, 종강파티, MT 같은 것은 단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그나마 주유소에서 한 달에 두 번 주는 휴가는 유일하게 종일 잘 수 있는 날이었다. 평범한 대학교 생활은 단 하루도 한 적이 없으며,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한다거나 같이 점심을 먹어본 적도 없다. 지금도 난 대학교 친구는 없다. 물론 우리 형은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한 적이 없다.

군대에서 난 운 좋게 천만 원을 모아 올 수 있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고 해외 파병에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번 천만 원으로 집에서는 형에게 차를 사줬다. 서운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학교 졸업 후 난 병원에 취직했다. 형은 공장에 취직했다. 난 결혼할 교사인 여자친구가 있었다. 집에서는 종교가 다르다는 것과 여자친구가 편모슬하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만나는 내내 반대를 했고, 결국 헤어졌다. 형은 나이 삼십이 되도록 한 번도 직업이라는 걸 가져본 적 없는 형수와 결혼을 했다. 종교는 물론 같았다.

내 나이 서른까지 나는 월급을 모두 부모님께 드렸다. 처음부터 부모님은 그걸 요구하셨다. 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형



이 결혼할 때 아버지는 우리 집의 거의 전 재산을 많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형에게 증여를 해주셨다. 난 더 이상 집에 돈을 드릴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도 생각이 많아졌다. 그때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았다.

부모님은 단 한번도 나에게 옷을 사주신 적이 없다. 삼십이 다 되도록 메이커 운동화나 옷을 입어 본 적이 없다. 내 옷은 항상 얻어오거나 중앙시장에서 샀다. 나는 옷에 관심이 없어서 상관없었다. 형의 옷장은 늘 메이커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님은 늘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셨으며,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부모님은 정말 힘들게 돈을 버셨다. 아르바이트와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을 나 자신이 행복해했고 자랑스러워했고, 공부도 잘하고 알아서 앞가림도 잘하는 나를, 부모님도 늘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셨다.

나는 우리 집이 정말 힘든 줄 알았다. 결혼하는 형에게 시내 한복

판에 있는 34평짜리 비싼 아파트와 지방의 24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증여해주고 그 막대한 세금을 낼 때까지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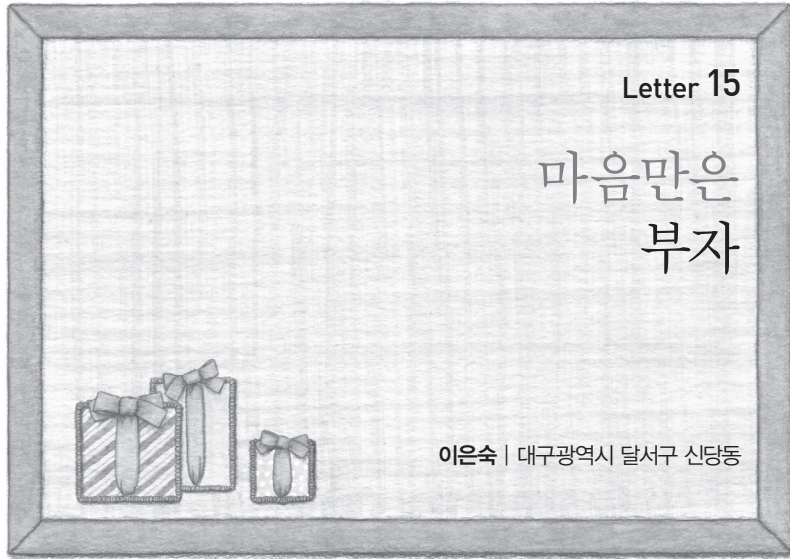
돈 때문이 아니다. 30년 동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스스로가 지나온 세월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적어도 대학교 등록금이라도 주셨으면, 아니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한 달에 5만 원이 아닌, 조금 더 넉넉하게 주셨으면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아무 추억 없이 친구 없이 혼자서 아닐 텐데, 친구와 술 한잔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서른 살의 가족 밖에 모르던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많이 싸웠다. 하루는 울며 부모님께 물었다. 나에게 왜 그랬냐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했냐고...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셨다. 절규하는 나에게 마침 잠깐 집에 들어왔던 형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고 나갔다. “누가 그렇게 살래?” 순간, 멍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래 형 말이 맞다.”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뚫었다.

얼마 후 직장을 정리하고 간단히 옷가지만 챙겨 집을 나왔다. 서울로 올라와 취직했고 원룸을 얻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마음먹었다. 난 패륜이다. 이제부터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싶다.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5년이 흘렀다. 내 나이 이제 서른다섯.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고 싶던 책도 많이 사고, 배우고 싶던 것도 배우고, 극장도 가고, 연극도 보고, 콘서트도 간다. 돈도 제법 모아 전세로 빌라도 얻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생활이다. 친척들이 많이 욕한다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돈 때문이 아니다. 내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가 온다. <잘 지내냐> 하고, 그럼 나는 <잘 지낸다> 하고 끝낸다. 난 패륜이다.



저는 화물 운전기사였다가 지금은 자그마한 당구장을 운영하는 남편과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잘생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35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작년 1월 5일 새벽, 남편은 갑작스런 복통으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다음날 '크론병'이란 진단을 받고 상태가 심각하여 1월 7일에 소장 일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크론병' 생소하시죠? 지금은 가수 윤종신 씨가 투병 중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로 뚜렷한 원인이 없고 또 완치도 안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고약한 병입니다. 음식도 엄청 가려서 먹어야 하고요. 그래도 요즘은 건강보험의 지원도 되고 수술 방법이나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서 그나마 낫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서 열흘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퇴원



만 하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오만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 면역억제제의 후유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고 그래서 살도 엄청 빠졌습니다. 원래 남편은 183센티미터 70킬로그램의 조금 마른 체형이었는데 지금은 60킬로그램도 겨우 나가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빈혈도 오고, 또 크론병의 특징인 이유 없이 찾아오는 복통도 한 번씩 오고해서 화물 운전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당구장을 열었습니다. 다른 일보다 체력적으로 덜 힘들고 손님 없을 때 쉴 수도 있고 또 복통이 오면 병원에 가기도 쉬울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맛벌이기도 고민했지만, 남편을 혼자 두기엔 남편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자칫하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우선은 남편의 당구장 일을 도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곧 괜찮아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외의 복병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아들입니다. 2학년이 되고 학급 회장도 맡게 되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어



느 순간 성적도 떨어지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하루는 태권도장 관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1학년 애와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관장님께서 중간에 말렸는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애를 마구 때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장으로 가봤을 때도 아들은 화를 주체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 관장님께서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으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아픈 남편에게만은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아직은 어린애인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남편은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고 자책하며 극도로 예민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주 큰 고비는 넘겼다고 안심했는지 그동안의 밀린 피로가 겹쳐 감기몸살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 생각에 아빠는 배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엄마는 아빠 보살피다가 같이 죽을까봐 너무 걱정돼...”

그때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걱정되고, 공포스러웠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심한 부모인 것 같아 미안하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과는 그 일로 진지하게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 절대로 작은 화라도 아이 앞에서는 내지 말 것
 -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몸 관리를 더 잘할 것
 -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는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라고 믿음을 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할 것
- 그리고 추가로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도록 저는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매일매일 오버스럽다 못해 닭살스러운 스킨십과 애정 표현도 더 자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현장학습 때 엄마가 쓴 도시락에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도시락데이’를 하는데 저는 편지도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와 사랑한다는 말을 길게 적고, 아기자기한 도시락을 꾸며서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점점 아들은 표정도 밝아지고 떨어졌던 성적도 올랐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서 반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험 공부라고 해봐야 매일 오는 학습지 풀어본 게 고작인데, 참으로 대견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만 원 한 장이라도 벌려고 당구장 문을 열었습니다. 극도로 나쁜 경기 탓에 월급이 밀린 사람도 많다던데, 그래서인지 손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가게에 나가 가장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남편을 보면 뿌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행운인 게 올해는 제 마음의 창고를 많이 리모델링해주고 넓혀준 좋은 인맥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늘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많은 조언과 응원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나 돌직구 같은 직설을 제게 해서 들을 땐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제가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바른 말로 강한 엄마가 되라고 응원해준 14층 주현이 엄마에게 꼭 감사할 전하고 싶네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뿌듯하고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지금의 이 상황도 열심히 잘 버티보면 언젠가 웃으면서 회상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남편은 한 번 씩 복통이 찾아와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술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여행 떠난 엄마

우현빈 부산 기장군 칠마면

양희은 아줌마, 강석우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신진초등학교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현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지구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셨어요.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꽃들이 정말 많이 피었습니다.
코스모스, 국화, 단풍들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엄마 생각이 나서 슬픔니다
내 마음이 당장 울고 싶지만 내가 울면
할머니께서 슬퍼하실까봐 눈물을 보이지
않아요. 할머니께서는 우리 엄마가 소중한
딸이니까요. 할머니께서도 저처럼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엄마의 바람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의 꿈인 판사를 이루어 사람들을
도와줄 것 입니다. 하늘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엄마
하늘에도 엄마가 좋아하는
단풍도 있겠지요.





요즘 여기도 단풍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바람이 불면
한 잎씩 떨어집니다. 꼭 내 마음 같이 나뭇잎이
떨어질 때 마다 꼭 나를 닮은 것 같았어요.
양희은 아줌마 꼭부탁이 있어요. 만약에 이 편지가
채택 된다면 저를 키워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부탁 또 한가지가 있는데요
유재석 아저씨를 만나게 해 주세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은 채택이 되어 할수 있지만
꼭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11월 10일 일요일 우현 빈울림



안녕하세요? 작가 이모.

제가 작년 가을에 낙엽을 따서 엄마생각
하면서 말린 단풍잎입니다.

양희은 아줌마, 강석우 아저씨,
모든 스태프들 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작진이 현빈이의 편지를 받은 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어린 가슴에 제작진은 다들 먹먹했습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방송을 하고 싶었지만 현빈이가 부탁한 ‘유재석 아저씨를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예전 여성시대를 연출했던 강성아 피디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성아 피디는 현재 ‘무한도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강성아 피디는 국민MC 유재석 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유재석 씨는 바쁜 스케줄로 현빈이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담긴 사인을 무한도전 달력과 수첩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진정 현빈이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함께요. 해를 넘겨 1월 7일 현빈이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고 사연을 들은 여성시대 가족들도 현빈이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약 현빈이가 유재석 씨를 만나러 서울에 오게 된다면 데리고 다니며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한편 유재석 씨의 사인을 받은 현빈이는 여성시대 앞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줍음 가득 담긴 목소리로 “여성시대에 감사드리고 유재석 아저씨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요. 현빈이를 위해 사인을 해준 유재석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텔레비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예전 여성시대 피디 강성아 피디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또 언제나 여성시대 사연에 귀 기울여주시며 함께 가슴 아파하고 도움의 손을 뻗어주시는 여성시대 가족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땀 한 땀 행복을 담아 짓는 옷

IBK기업은행 낙성대지점 거래고객
(주)정호진니트 정호진 대표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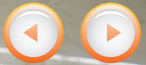
“대충 만들지 말고, 섬세하고 꼼꼼하게 만들자.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을 입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그 사람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옷을 만들면 고객들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라고 말하는 그녀. 지난 41년간 입는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니트를 지어온 정호진 대표를 만났다.

‘타고 났다’, ‘천직이다.’ 정호진 대표와 나눈 대화를 이보다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 대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듣고 있자니, 이 두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부모님이 포목 관련 사업을 하셨 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원단을 장난감 처럼 가지고 놀았지요. 원단을 가까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옷에 관심 갖게

됐는데, 니트가 주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좋아서 즐겨 입다 보니 직접 만들어보고 싶더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니트를 직접 만들어 입어보고 싶다는 열망은 그녀를 핸드메이드 학원으로 이끌었고,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단 1년 만에 학원 강사가 됐다. 강의를 하면서 틈틈이 주문 제작을 받아 옷을 짓던 중 정 대표의 니트를 본 백화점



바이어가 품평회에 출품할 것을 제안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그렇게 백화점에 입점하자마자, 매장에 고객들이 줄을 섰다.

“백화점 구경을 하다가 눈도장 찍어둔 옷을 나중에 사러 와보니 이미 팔리고 없어서 발걸음을 돌리는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그쯤 되자 ㈜정호진니트 옷은 바로 사야 되는 옷,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옷’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전략이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정호진니트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을 이어 오고 있다. 고급 소재와 보석 장식이 돋보이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급 브랜드’라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전략을 유지한 덕분이다. 편직물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각종

보석 장식(스톤), 레이스 등을 더해 ㈜정호진니트만의 독특한 색깔을 입히는 작업은 아직까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호진니트 제품이 더욱 가치 있는 이유다.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엄마 손에 이끌려 매장을 방문했던 어린 소녀들이 어느새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매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입는 옷을 만들고 싶다”던 정 대표의 바람이 이뤄진 것이다. 정 대표는 40여 년에 걸쳐 쌓아올린 ㈜정호진니트의 고급스런 이미지와 두터운 고객층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등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정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런치쇼에 고객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나 발전시키면 좋을 만한 아이디어를 듣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은품 제공, 패션쇼 등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고객 관리를 해 온 덕분에 ㈜정호진니트는 창립 이래로 단 한 번도 매출이 줄어든 적 없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승승장구



하고 있는 상황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지만, 정 대표는 인력난을 해결해야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니트는 수작업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노하우를 전수할 인재가 부족합니다. 젊은 인재를 양성해 우리 회사만이 지닌 기술력과 노하우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술을 터득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분야라 힘들어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지만, 그때마다 정 대표는 어떤 점이 어려운지 얘기를 들어주고 힘이 돼준다.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직접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함께 디자인 회의를 하고 직원들



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직원들과 터놓고 지낼 수 있게 됐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아니 세 번이 바뀌는 시간 동안 정 대표와 함께해 온 장기 근속자들이 많다고 하더니, 그 이유가 어렵듯이 짐작된다. 정 대표와 긴 세월을 함께해 온 동반자 중에는 IBK기업은행도 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 이 단순한 인연이 25년 넘게 이어져, 지금은 같은 건물 아래 위층을 쓰는 가족이 됐다.

“기업은행 직원분들이 ㈜정호진니트의 일을 본인 일처럼 많이 신경써 주시고, 무슨 일이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십니다. 자주 보고, 자주 얘기하다 보니 이제는 가족 같아요.”

IBK기업은행 낙성대지점 이찬용 지





점장도 같은 생각이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관계. 그런 의미에서 (주)정호진니트와 IBK기업은행은 한 가족입니다. 앞으로 (주)정호진니트가 더욱 승승장구하도록 곁에서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주)정호진니트가 명품 니트 브랜드

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이찬용 지점장과 낙성대지점이 최고가 되길 응원한다 말하는 정호진 대표. 2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촘촘하게 유지해 온 두 기업의 관계를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잘 짜인 한 벌의 니트를 보는 것만 같았다.



(주)정호진니트 정호진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낙성대지점 이찬용 지점장(오른쪽)

TIP 정호진 대표의 성공 노하우

1. 창조 : 실험적인 디자인과 앞서가는 컬러로 새롭고 젊은 디자인을 추구한다.
2. 참여 :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3. 진정성과 책임감 :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주)정호진니트

대표 정호진

본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정호진아트힐 (02-886-33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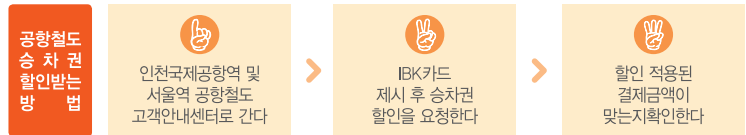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junghojin.co.kr>

공항철도 이용요금 IBK카드 결제시 1,100원 할인!



IBK카드와 함께하는 공항철도 할인 이벤트 안내

- 기간** 2015. 1.1(목) ~ 2015. 6. 30(화)
- 대상** IBK카드 소지회원(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제공 서비스** 공항철도 이용요금 IBK카드 결제시 **1인당 1,100원 할인**
1인 8,000원에서 6,900원으로 할인받아 구매가능(본인포함 4인까지 가능, 현장할인)
* 서울역 및 인천국제공항역 공항철도 직통열차(우정차열차)에 한함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14-1956호(2014. 12. 30)

• 인내정은 2014.12.30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는 1년 이상 축소, 폐지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사의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시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91) • IBK기업은행은 금융·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권리행영 위반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30, e-mail : itb@ibk.com.kr)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롭습니다. • 연체 이자율(최저 연 16.5%~최고 연 24%)은 정상 이자율 및 연체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창!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명품전
IBK기업은행 방학동지점 거래고객

동성제약
www.dongsung-pharm.co.kr



지금은 화이트 타임!
“밤 10시부터 랑스크림하세요”



멜라닌 케어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를 잘 아는 화이트닝
동성 랑스크림

동성 랑스크림은 나날이 쌓여가는 세월의 흔적을 멜라닌케어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 바꾸어 드립니다.

☞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입 및 문의 : 080 020 2500 | www.dseshop.co.kr | www.ilovenature.co.kr

회 사 명 : 동성제약(주)
대 표 : 이 양 구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문 의 : 02-6911-3600



식약처 인증
대형 기능성
화장품(안·화)



MBC

양희은·강석우
입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대전
92.5/91.3

삼척
101.5/93.1

춘천
92.3/88.9

서울
95.9

전주
101.7/94.3

대구
96.5

부산
95.9/106.5

제주
97.0/91.0
97.0/91.0



시간의 향기와 사람의 흔적이 고여 있는 곳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아사달 헌책방>을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위치한 <아사달 헌책방>에 들어서서는 모든 이에게 주인 이영열 씨는 음료수 하나를 먼저 건넨다.

“옛날에는 집에 누가 찾아오면 물 한 사발이라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저도 우리 책방에 찾아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음료수를 건네 드리는 겁니다.”

오산역 근처에 위치한 헌책방의 입구는 문짝 한 개가 들어서면 딱 맞을 넓이었지만 막상 구불구불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면 상상을 넘어선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좁은 나무 밑동 속으로 속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이 <아사달 헌책방>의 규모는





밖에서는 어림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시간의 향기와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고여 있는 헌책방의 고 절한 정취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제는 점점 사라져 가는 풍경 중의 하나인 헌책방은 우리에게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공간 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고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이 헌책방이다.

주인장인 이영열 씨가 헌책방을 운영한지는 이제 햇수로 10년 차. 평일에는 50여 명의 손님이, 주말이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간다. 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잡고 들어서는 엄마 아빠, 이제 막 한글을 떼고 더듬더듬 동화책을 읽고 있는 유치원생, 무협지만 골라 사가는 중년의 아저씨, 학교에서 필요한 참고서를 찾는 여드름투성이의 학생, 아이들에게 더 많은 책을 읽히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글짓기교실 선생님, 태교를 위해 동화책을 찾아 나선 젊은 새댁까지 손님들의 층도 다양하다.

“헌책방은 보물찾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책을 고르세요.”

보물찾기에 나선 손님들이 자신이 찾던 책을 골라 들고 가격을 묻는다.

“네, 천 원만 주세요.”

손님이 주머니에서 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네면 “이건 서비스입니다. 그 책을 읽을 때 함께 읽으면 좋아요.” 불쑥 다른 책 한 권을 공짜로 손에 쥐어준다.

천 원 한 장으로 책 두 권을 받아든 손님은 마치 횡재라도 한 듯 흐뭇한 얼굴로 책방을 나선다.

책값은 희귀본이 아닌 이상 천 원, 이천 원 선이다. ‘천 원 이천





원을 받아 얼마나 돈을 벌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더 조마조마하다.

이영열 씨가 현책방을 열게 된 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할까. 어린 시절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궁색한 집안 형편으로 14살 때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다. 공무원이던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따뜻했던 어린 시절은 마침표를 찍었다. 고향인 전남 장흥을 떠나오며 육십이 넘는 지금까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뽑기 장사를 하고, 원양어선을 타고, 공장을 다니고,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몸을 쓰는 일로 삶을 꾸렸지만 손에서 한번도 책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낮에는 힘든 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글을 썼다.

그리고 10년 전 막노동을 하던 어느 날,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차

에 치어 다리를 크게 다쳤다. 그 보상금으로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늘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책을 곁에 두고 살 수 있는 현책방을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그 또한 즐겁다.

처음에 오백 권으로 시작한 책이 이제 오만 권이 되었다. 오래 묵은 책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아직도 여전히 좋다는 그다.

그가 좋아하는 장르는 SF소설이다.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 마음껏 자신을 풀어내며 글쓰기 내공을 다진 지도 오래 전부터다. 그는 1988년도 모 신문의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당당히 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작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의 산문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과학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 작가 ‘쥘 베른’과 러시아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글을 좋아한다.

팔순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는 아직도 배필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책과 사랑에 빠졌다고 할 수 있지요. 이제 이 나이에 누굴 만나겠습니까? 그냥 책방이 잘 유지되고 먹고사는 데 지장만 없다면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사달은 고조선의 수도로 전해지는 지명이다. 단군이 평양성에 고조선을 세웠다가 아사달로 도읍지를 옮겨서 약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전설 속의 그곳.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성지라는 그곳의 이름을 딴 현책방에서 현책 한 권 한 권을 따뜻한 눈으로 쓰다듬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한 폭의 정물화 같았다.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 85 공감사연 공감전화 총각무의 추억
- 88 노래 하나 추억 하나 흥남철수 작전의 피란민입니다
- 92 장용의 단필총 그건 안 먹어!
- 98 나의 연애시대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공감사연 공감전화

총각무의 추억

박정화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15년 전, 공무원이었던 저는 아이들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결혼하고도 모든 게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집안일이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둔 그 때부터 시련이 한꺼번에 겹쳐 오기 시작하더군요. 지인에게 사기 당하고, 주식 해서 집 한 채 날리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어려서 어떻게 뭘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어 일어서는 힘이 생긴 걸까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는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저에게 힘이 부쳤는지 10년 전, 건강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갑상선암이라는 선고가 떨어졌어요. 요즘은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총각무 김치를 담아놓고



병원에 가려고 세 단을 샀습니다. 밤새 한 단을 다듬어 놓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한

다고 해서 저도 따라 일어났죠. 그런데 총각무가 삐뚤삐뚤, 울퉁불퉁, 얼렁뚱땅 다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다듬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절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지리산 소나무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저 총각무 니가 그랬나?”

“응. 엄마가 너무 힘든 거 같아서. 엄마가 한 거 보고 했는데, 현지도 같이 했다.”

저는 눈물이 나서 우리 아이들을 꼬옥 끌어안아줬습니다. 아들 나이 10살, 딸아이 5살. 그 어린것들이 밤새 코를 찔룩거리면서 다듬었을 걸 생각하니 너무나 맘이 아프고 내 처지가 한심스럽고 서러워서 영영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마트에 갔더니 총각무가 세일을 하더군요. 아이들이 성장하니 각자 밖에서 밥을 먹고 오는 일이 많아서 요즘 저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지 않는데 총각무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네 단을 샀습니다. 총각무를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과거도 지나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되는 거 같습니다.

저번 토요일에는 아들이 집에 오지 않았네요. 공군 기술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은 당직 서고 너무 피곤해서 숙소에서 좀 쉬겠다고 합니다. 아직은 막내 하사라 금요일 당직은 아들이 많이 서나 봅니다. 이번 토요일에 아들이 오면 금방한 밥에 총각무를 잘 익혀서 밥을 쥐어줬습니다. 이제는 배추 김치도 몇 포기 담아볼까 합니다. 이 다음에 며느리 김치 담가주려면 지금부터 감각을 익혀야겠어요.

10년 전 10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제게 준 감동을 영원히, 영원히 잊지 못할 거 같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하나

홍남철수작전의 피란민입니다

최선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나는 함경남도 홍남시 구룡리가 고향이고 어린 시절 그곳에서 자랐다. 1950년 12월 12일, 장진호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원산에서 퇴로가 차단된 국군과 유엔군이 홍남 해상으로 철수를 시작했다. 그때 홍남 주변에 몰려든 10만 명의 주민들이 함께 동해상으로 내려온 홍남철수작전 당시 나는 일곱 살의 어린아이였다.

작고하신 부모님께서 생존 시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홍남철수작전 기간 중의 어느 날 새벽,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나보다 두 살 아래인 여동생과 함께 “나는 이미 늙었으니 너희들이나 가서 목숨을 부지하라”는 할머니를 집에 홀로 남겨놓고 부모님에게 이끌려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는 눈길을 걸어 홍남부두로 향했다. 우리가 홍남 부두에 도착했을 때 넓고 긴 해변엔 우리가 타고 갈 배도 없었고 피란민도 별로 많지 않았다. 무척 추웠고 우리 식구들은 가마니 한 개를 주워 깔고 앉았다. 날이 새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란민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오후가 되자 해변은 피란민들로 꽉 차 버렸다.

다음 날, 홍남 부두가는 피란민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바람이 찬 홍남 부두가에서 우리 식구들은 추위에 떨며 수만 명의 다른 피란민들과 함께 우리를 남쪽으로 데려다줄 배가 혹시 오지 않나 하고 막연히 먼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선 미군 비행기들이 낮게 왔다 갔다 날아다니며 근처에 있는 동양 제일의 홍남비료공장을 폭파시키느라고 폭탄을 수없이 떨어뜨리고 있었다. 비행기 밑으로 주르르 떨어지는 폭탄들, 잠시 후 들려오는 폭음, 쿵! 쿵! 쿵! 처음엔 먼 곳에서 약하고 희미하게 들려오던 대포 소리, 쿵 쿵쿵. 대포 소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때 어느 순간, 모든 피란민들의 눈은 한곳에 집중되었다. 멀리 수평선 위에 점 같은 것이 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점은 시간이 지나 갈수록 점점 크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배였고 군함이나 상륙정이 아닌 화물운송용 큰 배였다. 그 배는 얼마 후 홍남 부두가 접안 시설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리고 배 위에서 미국 선원들이 피란민들이 탈 수 있게 철제 사다리를 밑으로 내려주었다. 피란민들은 줄선 순서대로 그 철제 사다리를 타고 배 위로 차례차례 올라갔다.

혹시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을까봐 그 광경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수만 명의 피란민들.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차례가 왔다. 우리는 서로 서로 손을 잡고 배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여 그 배에 탄 피란민들은 홍남 항구를 벗어나 남쪽으로 피란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훗날, 인터넷 등을 통해 장진호 전투 등 홍남철수작전에 관계된 기록들을 검색해본 결과 홍남철수작전 때

민간인들의 승선은 1950년 12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천 명이 타도록 설계된 상륙정에 5천 명까지 승선시켰다. 피란민이 너무 많이 타서 갯벌에 처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륙정도 있었다.

그리고 피란민들을 싣고 맨 마지막으로 홍남 부두를 떠난 배가 온양호였다고 한다. 12월 24일 14시 30분쯤 온양호가 홍남 부두를 떠난 직후, 미군은 홍남 부두의 접안시설을 함포 사격과 비행기의 폭격으로 폭파시켰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 가족이 올라탄 미국 화물선은 마지막 피란민 수송선인 LST 온양호보다 며칠 또는 몇 시간 먼저 홍남 항구를 벗어난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가 탄 미국 화물선이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을 때 거제도 주민들이 몰려나와 자기 집에서 지어온 소금물을 바른 주먹밥 한 개씩을 피란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날 밤, 장승포의 어느 집 헛간에 서 잠을 잔 우리 가족은 다음 날, 다른 피란민들과 함께 콩콩 얼어붙은 허허벌판에 미군들이 급하게 세워준 수백 개의 군용 천막으로 이동했다. 피란민들은 난로가 없는 천막 안에서 바닥에 가마니 등을 깔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다.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 입을 것도 없는 등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에서 각 천막에서는 피란민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갔다. 그 와중에 나의 아버지도 심한 기침을 하고 가래를 깡통에 많이 뱉어내다가 돌아가셨다.

어느 시점, 남은 우리 가족은 피란민 천막촌을 빠져나가 연초리의 냇가 둔덕에 풀과 나무와 판자로 엮은 움막집을 짓고 살았다. 그곳에서 나는 연초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글자도 배웠다.

그해 여름, 피란민 움막집촌을 약질 뇌염이 휩쓸었다. 그 바람에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고 나의 여동생도 뇌염에 걸려 죽었다. 여동생의 시체를 안고 슬피 울던 어머니. 이제 남은 것은 나와 어머니 둘



뿐. 어머니는 우리 두 식구가 먹고살기 위해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야전잠바, 내복 등을 가지고 먼 시골, 부산 등지로 떠돌아다니며 행상을 했고, 손발이 동상에 걸려 진물이 줄줄 흐르던 나는 인민군 포로들이 가끔 미군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포로수용소를 나올 때 어머니가 준 엷 몇 가락을 들고 다가가서 비누, 옷 등과 교환하였다.

그러다가 내가 연초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다. 거제도 피란 시절, 심하게 동상에 걸렸던 손과 발은 내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해마다 재발되어 나를 괴롭혔다. 군복무를 마친 후엔 다행히 총무처 시행의 5급 을류 운수직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34년 6개월간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세월이 빨리 흘러 나는 지금 72세의 노인이 되어있다. 지금도 나는 가끔 홍남철수작전 때 긴박하고 처절한 상태에서 배를 타던 일과 거제도에서 고생하던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홀로 눈물짓곤 한다.

장용의 단 · 필 · 층

그건 안 먹어!

류재구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저는 91년 강원도 강릉과 주문진 사이의 연곡해수욕장 옆길 깊은 안쪽 작은 소초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낙후되고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나름 즐거움도 많았던 군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해안 경계근무가 주요 임무로서 낮 12시까지 오침을 하고 오후에 일과를 시작해서 해 지기 전 전원 감시근무를 시작으로 밤새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경계근무를 서고, 일출 이후에 전원 복귀하여 오침을 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경계근무에 한줄기 빛이 있다면 순찰근무로 사수와 부사수 2인으로 구성된 순찰조는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책임경계구역의 처음에서 끝까지 철책선을 따라 갔다 오는 임무입니다. 그 끝 지점에는 있는 작은 어촌마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와 공중전화가 한 대 있어서 부모님께 전화도 한 통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터라 순찰당번이 돌아오기를 누구나 기다리는 꼴 근무

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철책선을 따라 약 4킬로미터를 걸어야 하고 그 중간에 공동묘지를 통과해야 하는 터라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는데, 졸병들은 소초에 키우는 잡견들을 순찰견처럼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저와 김 병장님이 순찰조에 편성되었습니다. 김 병장님은 평소 운동을 무척 좋아하고 의리 있는 다혈질의 상남자였습니다. 대대 회식 때는 돼지 때려잡는 일에 동원될 만큼 큰 간을 자랑하기도 했구요. 우리는 전원감시를 마치고 잠시 대기를 하다가 보름달이 휘영청 한 밤길 순찰을 나셨습니다. 평소 제가 소초 잡견들에게 짬을 듬뿍 주어 인기가 좋았던 터라, 제가 순찰을 나가면 소초에 강아지들까지도 따라나서는 통에 족히 10마리에 가까운 소초견들과 김 병장님과 저, 합이 12의 순찰조는 조용한 해변 철책길을 산책하듯 걷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구간의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소초견들 중 짬이 가장 높은 암컷 땡칠이가 묘지 쪽 숲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땡칠이, 조용해!” 제가 말려도 땡칠이는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고 나머지 소초견들도 같은 방향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더군요. “야! 땡칠이 풀어줘 봐!” 김 병장님이 제게 단호하면서도 낮게 말하고 탄 입대에서 탄창을 꺼냈습니다. ‘혹시 간첩이나 무장공비? 이 일대는 민가와 많이 떨어진 곳이고 공동묘지인지라 늦은 밤에 올 사람도 없는데... 또한 과거 무장공비침투 적발 사살구역으로 팻말이 서 있는 곳과 불과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지요. 탄을 꺼낸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 때문에 공포탄이 전부인데 만약 진짜 공비면 꼼짝없이 당할 텐데...’ 제 심장은 방망이질을 시작했고 땡칠이의 목줄을 풀어주



는 순간 소초견들은 공동묘지 옆 작은 솔밭으로 튕겨나가듯이 들어가 어둠 속에서 사납게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총소리가 없어서 무장공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며 현장에 도착하니 웬 짐승이 죽은 듯 누워 있는데 소초견들이 빙 둘러서서 마구 짖었습니다.

“류 일병! 개 잡아라!” 김 병장님의 명령에 저는 잼싸게 땡칠이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개들을 진정시키는데, 앗!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머리를 들어 올려서 가장 약해보이는 개들 사이로 손살같이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는 게 아닙니까? “개 풀어! 땡칠아, 잡아!” 김 병장님의 급한 명령으로 소초견들은 다시 달아난 짐승을 추격했고 달밤의 추격전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개들이 모여 짖기 시작했고 그곳에 다시 아까 그 짐승이 죽은 척 누워 있는 게 아닙니까. 김 병장님은 언제 주웠는지 모를 큰 몽둥이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냐, 요놈!” 하고 휘둘러 한방에 이 짐승은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포승줄을 풀어 죽은 짐승의 네 다리

를 묶어 나무에 걸치고 소초로 가져오는 것으로 순찰 임무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다음날 아침 전원감시를 마치고 온 후였습니다. 어촌마을 구석에서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고향은 모두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출신들로 구성된 병사들은 평소 야생동물을 본 적이 없었던 터이고 소대장님 또한 대전 분으로 도시 사람이어서 모두 모여 잡아온 짐승에 대해 각자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약간 시골의 향을 풍기며 낫질과 삽질에 능숙해서 모두들 시골 출신으로 알고 있던 정 병장님이 뒤늦게 복귀해서 이 짐승을 보시며 “이거 오소리 아냐? 이거 어디서 잡았어? 이야~! 오소리가 약인 거 알아 몰라? 오소리가 정력에 끝내주는데... 인사계님 보시면 당장 뺏어 가실 거니까, 오시기 전에 얼른 우리끼리 먹어치우자.” 이러면서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닙니까. ‘군대서 가장 무서운 인사계?’ 요즘은 행보관이라 불리지만 저희 때는 인사계였죠.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오소리가 약이 된다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이고, 인사계님에게 뺏길 수 있다는 말에 앞뒤 볼 것도 없이 취사병 정 일병은 토치로 털을 흘랑 그을려 버리고 나서기 정 병장님이 칼을 들고 먹을 수 있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짐승이라 소대원 전체가 먹을 수는 없으며 병장선들만 따라오고 저는 잡는데 일조했다는 공으로 특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약 7명 정도가 소초 뒤 솔밭 안에서 불을 피우고 오침을 반납한 채 그 짐승을 구웠습니다. 취사장에서 가져온 양념을 뿌려도 취사병 정 일병의 토치질 때문인지 노린내가 엄청 심했지만 나서기 정 병장님이 “오소리가 남자 정력에 왔다 아입니까! 냄새가 썩나도 이기 엄청 귀한 겁니다. 그라이 천연기념물이 된지지에.” 나서기 정 병장님은 너



무나 흥분한 나머지 고향 부산 사투리까지 써가며 고기를 뜯었고 나머지 병장들과 소대장님도 정 병장님의 설레발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다투어 고기를 뜯었습니다. 숯불에 급하게 구워 타고 질기고 노린내에 절은 고기는 그렇게 일곱 군인들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오침을 마치자 정 병장님은 “아이고~ 오소리가 좋기는 좋나보네. 몸이 엄청 가볍네. 이 병장님, 김 병장님은 어떠신가요?”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다른 병장님들도 “아닌 게 아니라 피곤하지가 않네” 하며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닙니까.

상병들과 일·이병들의 부러움 반 호기심 반의 눈길을 즐기듯 병장들의 오소리 고기 예찬론으로 오후 일과를 시작할 때 순찰근무 최종 목적지인 어촌마을 앞 폐 소초에 통신선 확인을 위해 저와 왕고참 이 병장님이 작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른 작업을 마치고 유일한 구멍가게에 들러 음료수와 과자를 먹으면서 가게방 아저씨와 이 병장님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장, 군 생활 어케남웃나? 제대할 때 영강뎌제?”

“다음 달에 제대합니다.”

“말년일수록 조심해야대, 재수 없이 다치고하든 니만 손해야.”

그러자 이 병장님께서 “어제 몸에 좋다는 오소리를 먹어서 그런지 몸이 가볍하네요” 하자 가게방 아저씨의 눈빛이 반짝하며 “여태 오소리가 있잖나? 그러믄 오소리 썰개는 우쨌나?”

“썰개요? 그건 비닐봉지에 싸서 숲속에 묻었는데.”

그러자 가게집 아저씨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이 날씨에 상하지는 아이 했을 거이고, 그거 갖다주르믄 내가 삼만 원주께.” 삼만 원! 병장 월급이 일만오천 원쯤이었는데 보너스 달 월급을 준다는 말에 이 병장님 눈빛도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소리 맞지? 오소리 맞으믄 내가 삼만 원 바로 주께!”

“틀림없어요. 털 길고 짙은 고동색 짐승.”

“땅에 딱 붙은 건 아니고 꼬끔 키가 있는 편이지? 꼬리가 길고 꼬리 털이 길었지?”

“예!”

“귀가 작지 않고 크지?”

“예, 잘 아시네요.”

“혹시 눈 주위가 좀 질지 않나?”

“그건, 잘...”

그때 제가 “그랬던 거 같아요” 하고 말하자 아저씨는 “에이! 그거 너구리라, 너구리. 너구리 썰개는 안 묵아! 너구리를 누가 묵나? 노랑 내 많아서 못 묵아. 가주구 오지마!” 하시는 게 아닙니까. “정력에 왔더라고...” 하며 말을 흘리는 이 병장님께 가게 아저씨는 “누가 그래? 진짜 오소리도 썰개는 약 하고 기름에 단데(화상에) 좋아서 약으로 쓰고 하지. 정력은 무신? 들짐승 잘못 묵으믄 큰일 나!” 하시는 게 아닙니까! 순간 이 병장님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가게를 나오는 우리의 뒤통수에 “어케 오소리캉 너구리캉도 모리나? 들 익은 거 묵었으믄 큰일인디?” 하는 아저씨의 카운터펀치가 날아들었습니다.

복귀 순간 분노한 이 병장님의 추궁에 설레발 정 병장님은 자신도 그때 처음 본 짐승이고 마침 생각나는 이름이 오소리였다고 실토를 했고, 소대장님은 급히 외출하여 약국에서 구충제를 자비로 사와 모두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때 발 빠른 대처 덕분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별탈이 없는 걸 보면 앞으로도 별일은 없겠지요.

그때 같이 깔깔대고 허둥대고 울고 웃던 전우들도 이젠 중년의 아저씨들이 되었겠지요. 찬바람 불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웃음 짓습니다.

나의 연애시대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이경선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0여 년 전,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일명 밭떼기 장사!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종 채소들을 밭에서 통째로 매입하여 작업을 해서 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저는 그 남자가 건달인 줄 알았어요.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처음 보는데도 반말 비슷하게 능글능글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이~ 아줌마 그러지 말고 딸 있으면 소개시켜줘.”

“하이고~ 전국에 애인 심어놓은 건 아니고?”

“우리 누님, 오늘 왜 이럴까. 다들 나 보고 껌뻑 죽는 건 맞지만, 저요 순정파예요, 순정파!”

그러다 10월 중순, 직장에 다니던 저는 주말이라 집에 내려와서 우리 집 쪽파 밭에서 일을 돕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제 행색은 마스크에 모자, 엄마의 일 바지까지 챙겨 입은 영락없는 시골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건달처럼 생긴 그 남자가 우리 아버지께 성큼성큼 다

가와 무언가를 열심히 물었고, 아버지는 열심히 대답을 하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에게 묻더군요.

“아까 그 최 기사 말이여, 사람이 행색은 꼴랑해 보여도 속은 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테냐? 아까 나한테 너에 대해서 묻더구나.”

저는 하도 기가 차서 아버지께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 좀 봐가면서 소개해주세요. 그 남자 완전 깡패 같은데, 제가 들으니까 우리 쪽파 밭 작업하면서 아줌마들한테 실실 농담이나 하고 여자 소개 달라고 하던데, 날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를 한대요? 전 싫어요!”

“내가 그 사람 한두 해 만난 게 아녀. 우리 동네 쪽파 작업한 거 전부 그 사람이 가져가고, 우리 집 것도 몇 년째 가져가는데, 사람이 괜찮아 인정도 있고. 누나들이 셋 있는데 막내래. 밭으로 맨날 댕겨서 행색이 그래서 그런 거지.”

아버지는 저를 설득하셨지만, 저는 그 남자의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집에 갔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날은 우리 집 쪽파가 출하되던 날이어서 또 그 남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저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 왔습니다.

“아버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건달처럼 보여서 싫다고 했다면서요? 저 그런 사람 아니예요. 아줌마들을 많이 만나다보니 농담처럼 하는 인사가 그런 거지. 저 정말 한번도 여자를 소개받아 본적도 없어요.”

“아... 예... 그러세요.”



“아~ 진짜예요. 말만 그렇지 나 진짜 숙맥이에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을 했지만, 그 남자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다섯 번만 만나보고 괜찮으면 더 만나보면 안돼요? 진심으로 만나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명함을 버리지 못해 며칠째 만지작거리다 드디어 전화를 했습니다.

“다섯 번이라고 했죠?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일단 한번만 만나볼게요.”

“어! 정말요?”

“한 번 보고 괜찮으면 다섯 번 만나는 거 정해도 돼요? 제가 싫다고 하면 앞으로 저 귀찮게 안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행이다. 명함 주고 전화 안 오면 정말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하하~.”

그 남자는 아버지께 제 이름이며 나이, 직업도 벌써 수소문해서 알아 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밤늦게 채소 운반하는 일을 하다 보니 데이트를 할 시간이 도무지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묘안을 낸 것이 채소를 싣고 저를 차에 태우고 서울을 오가면서 데이트를 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첫 데이트를 하던 날, 그 남자와 저는 휴게소에서 늦은 저녁으로 어묵을 먹고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씨는 보고 싶은데 시간은 안 나고, 제가 다음에는 분위기가 있는 데로 모실게요.”

“괜찮아요. 재미도 있고 좋은데요?”

그렇게 새벽까지 함께 첫 데이트를 마치고 저를 내려주면서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첫 데이트 시시했죠? 근데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새벽까지 함께 있어본 여자가 경선 씨가 처음이에요. 저 한 번 더 만나주실래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첫 데이트 이후 그 남자가 싫지 않았던 저는 다섯 번의 데이트를 했고, 다섯 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그 남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앞으로도 경선 씨랑 이렇게 늦은 밤에도 계속 데이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경선 씨가 원하면 이 일 그만두고 낮에 하는 일, 찾아볼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영화도 보고,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게 할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누가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후 1년간 그를 따라다니며 야간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야간 데이트는 정말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고속도로가 꽉 막혔어도 마냥 좋아했고, 가끔 저는 회사 일이 너무 피곤해서 화물차에서 곤이 잠이 들었다가 집에 도착해서야 눈을 떠서 그에게 너무 미안했던 일도 있었지요. 또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눈이 내린 날은 갓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눈을 맞으면서 미래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결혼하기 전까지 근사한 데이트를 한 게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화물차에서 초라한 행색을 한 남편과의 데이트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사랑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화이트칼라에 평범한 데이트를 원했던 제가 휴투성이에 맡은 늘 반 토막이던 남편에게 폭 빠진 걸 보면요. 오늘은 오랜만에 남편과 야간 데이트를 해보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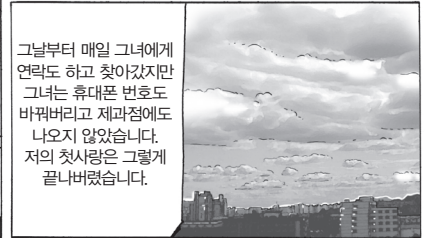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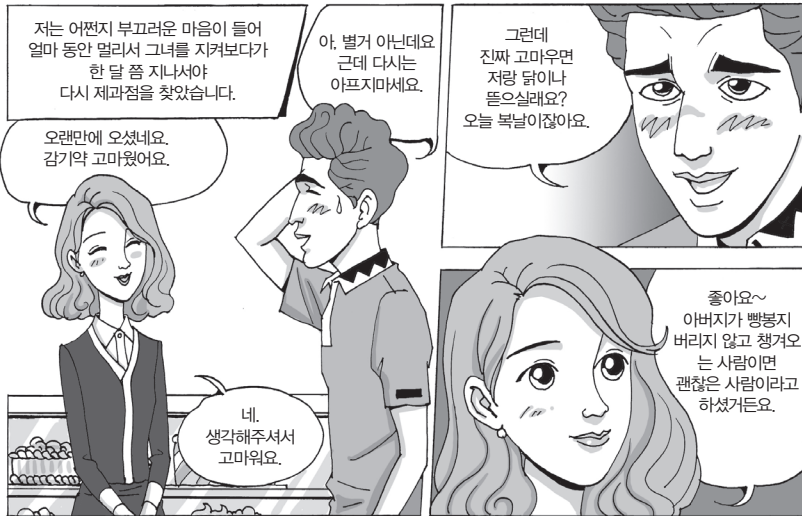


경아, 어디 갔니?

그림 | 김곡, 우영미

※ 〈여성시대〉 가족 황명환(대구광역시 북구)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지금 저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했고, 대구 신OO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빵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그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맛있다고 소문도 났습니다.



쩡아!
나 너를 꼭 찾을지언!
두류공원 커피숍 다락방에
우리가 적었던 노트에
내 연락처 있으니까
꼭 연락해 줘으면 좋겠다.
그리운 쩡아~
보고싶다!



쉬운 육아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s) |
일러스트 | 조신애

부모 노릇은 힘들다. ‘무자식이 상팔자’는 예전엔 그저 푸념이었지만 요즘의 젊은 부부들에겐 실천 지침이 되고 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회이다 보니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많은 것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것을 채워 사회에 내보내야 하는 부모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아이 키우기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것이 요즘의 부모들이다.

하지만 육아가 어려운 데는 육아에 대한 부모 자신의 잘못된 태도

에도 원인이 있다. 운동을 할 때 좋지 않은 자세로 운동을 하면 힘은 몇 배로 들지만 결과는 좋지 않듯 육아에서도 잘못된 태도는 우리의 힘만 잡아먹을 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못된 태도나 자세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 그것이 당장은 익숙하고 변화를 가져오려면 따로 신경 써가며 노력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일은 금방 끝날 일도 아니고, 취미 삼아 하는 운동도 아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고 인생의 황금기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 당장은 어색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배워서 육아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육아를 쉽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나와 아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약점을 인정하면 그대로 무너질 것만 같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서다. 그러나 결함 없는 인간은 없다. 아니 결함이 있기에 인간이다. 아이가 가진 어떤 결함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가져갈 것이고, 어떤 결함은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결함이 있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이 인생이다. 약점을 숨기고 문제를 숨기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든다.

아이가 무언가를 못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아이가 안 좋은 성격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지금 내가 아이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부모인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자책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좋은 부모가 아니면 어떡고, 지금 이 모양이면 어쩐가? 그 모습 그대로가 나이고, 그 모습 그대로 아이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부모다.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면 된다.



육아를 쉽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아이를 당장 바꾸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은 하루 빨리 고쳐주려 한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잔소리 중 하나가 몇 번 말했으면 고쳐야지 왜 안 고치냐는 말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자신도 고쳐야지 여러 번 마음먹고도 고치지 못한 문제가 꽤 있기 마련이다. 잘못은 잘못인지 아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잘못인지 알더라도 행동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을 당연시 여기면서 아이가 하는 잘못은 왜 빨리 바꾸지 못하냐고 야단친다.

가끔은 아이가 행동을 빨리 바꾸지 못하는 것을 부모에 대한 반항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반항이라 생각하면 부모는 겁도 나고 화도 난다. 그래서 누르려고 무리해서 야단을 친다. 하지만 그래봐야 힘들어지는 것은 부모 자신이다. 아이에 대해 실망하니 힘들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 답답한 마음이 들어 힘들다. 잘못된 기대를 가진 것이 문제의 원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 속상해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다보니 정작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조금씩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조금씩 이끌면 가랑비에 옷 젖듯 아이는 결국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급하게 바꾸려다 아무런 변화도 얻지 못한다. 부모는 결국 바뀌내는 사람이지만, 당장 바뀌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몰라서 육아가 힘들어진다.

육아를 쉽게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 오지 않을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부모들에게 나는 종종 어떤 일을 하느라 그렇게 힘든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도록 한다. 막상

적어보게 하면 먹고, 입고, 어딘가 데려 가고, 잔소리하는 것 외에 특별히 아이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 애쓰지만 그 시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걱정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 의미 없는 시간도 없다.

부모들은 보통 아이의 작은 문제도 부풀려서 걱정한다. 돼지저금통을 뜯어 딱지를 사면 애가 이러다 도덕성이 결여된 아이가 되지 않나 걱정한다. 야한 사진을 본 것을 발견하면 이러다 변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너무 먼 미래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다. 아이의 문제를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은 아니다. 고민은 필요하다. 하지만 고민의 방향은 실천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다. 한 가지를 하면 다른 한 가지는 놓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 그렇다면 내가 당장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택한 후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는 편이 낫다. 걱정에 휩싸여 있기에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 걱정할 그 시간이 있으면 아이를 위해 무슨 일을 하거나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편이 낫다.

결국 육아를 쉽게 만드는 비결은 부모의 마음씀에 있다. 나와 아이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이를 당장 바꾸는데 매달리지 않고, 오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은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불안에 대한 이야기고 불안을 잘 다뤄야 육아가 편해진다. 그래서 좋은 육아는 부모가 스스로를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나를 먼저 돌봐야 한다. 그래야 육아가 편해지고, 육아가 편해져야 부모가 밝아지고, 부모가 밝아져야 아이가 행복하다. 그것이 쉽게 하는 육아의 비밀이다.

청춘은 가도
노래는 남아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1월 29일 K본부의 <열린 음악회>를 녹화했다. 특별 편성한 송창식·양희은 특집이다. 설 전후 일요일 저녁 6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노래 연습을 하면서 고2 여고생이 되었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영화 처럼 스쳐갔다. 나는 고2 때 송창식 형을 처음 뵈 기회가 있었다. 우리 학교 특별반인 영어회화 클럽의 직속 선배인 윤형주 선배가 창립 기념일에 초대받아 오셨는데 그때는 송창식, 윤형주 두 분이 '트윈폴리오'로 활동을 할 때라 늘 같이 다니셨다. 재학생 대표로 내가 노래를 했는데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부르니까 두 분이 기타 반주로 감싸주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형주 형이 같은 교회의 우리 학교 아이를 찾아 양희은에게 건네주라며 트윈폴리오 공연 초대장을 주셨다.

그렇게 맺은 인연은 내가 예비고사를 치른 뒤 '청개구리'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청개구리'는 서울YWCA 식당을 개조한 앳은행이식 좌식다방으로 입장료는 100원.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통기타 문화의 1세대와 2세대가 만날 수 있었던 곳으로서 의미가 크다. 60년대 말 세시봉에서 창식 형은 숙식을 해결하고, 노래도 했다고 한다. 이불 대신 우단으로 만든 옛날식 피아노 덮개를 덮고 잤다고 한다.

난 누구보다도 창식 형 노래를 좋아했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 끼니도 이을 수 없는 모진 바람이 불 때 난 형을 찾아가 노래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왜 노래를 하려고 해?”

“돈이 필요해서요.”

뛰어져라 보시던 그 눈빛을 잊지 못한다. 그러더니 이종환 선생님 앞에 날 데려가 “형, 애 노래 좀 들어봐줘요. 노래 아주 잘해요.” 적극 추천하시며 자기 스테이지 시간을 10분 남겨 놓고 내려오셨다. 그 10분 동안 부를 만한 레퍼토리도 변변찮아서 ‘섬집아기’ ‘따오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등을 불렀는데 무대에서 내려오자 내일부터 나와 일하라 하셨다. 그때 내가 이종환 선생님께 “그런데요, 저 가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쳐다보시다가 그렇게 해주신다 하셨다.

그렇게 나는 창식 형의 추천에 힘입어 세상 앞에 섰고 처음으로 노래와 돈을 바꾸게 되었다. 훗날 형은 살면서 양희은 빼고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 달 일하다가 나는 꿈에 그리던 통기타의 메카인 ‘오비스캐빈’에서 오디션을 받아 통과하여 그곳에서 20대를 보내며 가족을 부양하고 동생 둘도 나도 대학까지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특집에서 창식 형과 같이 부를 노래로 ‘슬픈 얼굴 짓지 말아요’, ‘사랑이야’를 골랐는데 ‘사랑이야’는 본래 나를 생각하며 만든 노래라고 제작진에게 말해주셨다. 아마 희은이는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와!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청춘도 가고, 긴 세월 이렇게 살아남아, 시궁창에 엎어져 있을 때 처음 내 손을 잡아준 바로 그 선배와 육십객이 되어 함께 무대에 오르는 감격. 형도 나도 초년고생이 말이 아니었는데 형은 일흔을 바라보고 나는 6년쯤 뒤쳐져 그 뒤를 따라가고 있으니... 창식 형의 옛 노래를 들으며 우리의 가버린 청춘도 아련히 아팠고 지금 이 순간의 함께하는 무대도 감격이었다.

또 다른 첫 출발



강석우 | 여성시대 진행자

나는 어릴 적부터 음악이 참 좋았다. 길을 걷다가도 음악 소리가 들리면 악기 소리든 성악 소리든 가까이 다가가서 듣다가 가곤 했다. 특별한 음악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성가대를 했으니 일주일에 서너 번의 연습과 찬양이 그 시절의 문화적 환경으로 보아서는 대단한 교육이라 할 수도 있겠다.

국민학교 6학년 쯤, 학교 근처를 지나는 차에서 낸 클래식 소리에 선생님은 “무슨 음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물으셨고 눈만 껌뻑이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술입니다”라고 했다. 선생님은 풍금에서 음을 찾더니 “술 맞았다” 하며 “니가 어떻게 알았지?”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던 조종만 선생님의 모습이 어제인 듯하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날의 그 작은 사건이 나 스스로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78년 연기자의 길로 들어선 후 82년 드디어 KBS 일일드라마 <보통사람들>로 TV에 데뷔하게 되었다. 그 드라마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대단한 인기를 누리며 일일연속극이 3년을 이어가는 진기록도 세우게 된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나의 인기도 올라갔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개그프로그램이나 <젊음의 행진>에서 나를 끌어내려고 거의 욕박이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에

는 연기 외의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내가 공부한 대학의 학풍이기도 했고 나를 가르쳐주신 이해랑 선생님이나 유현목 교수님의 영향이기도 했으리라. 어쨌든 <젊음의 행진>에 기타를 메고 출연하게 되었고 그 당시 신인 그룹 ‘다섯손가락’과 함께 ‘닐 다이아몬드’의 ‘Solitary Man’을 어린 시절부터 갖고 닦은 실력으로 근사하게 연주와 노래를 마치게 되었다. 그날 KBS 별관 공개홀의 벽에 부딪혀 난반사되어 묘한 소리가 되어 들리던 그 함성이 생생하다.

자연스럽게 몇몇 제작자와 레코드회사에서 음반을 내자는 ‘콜’이 제법 왔다.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잘 해보려는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연기 외의 일은 탈선이라는 생각이 고집스럽게 껍 차 있었다.

얼마 후 <젊음의 행진>의 진행자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첫 녹화 날 스튜디오에 가질 않아 여자 진행자 혼자 녹화를 하게 되는 해프닝도 있었고 시청자들은 몰랐겠지만 MBC에 <영11>이라는 쇼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이덕화 형을 앞세운 그 유명한 신종인 PD의 유혹도 있었으나 덕화 형의 편지를 무릅쓰며 거절하기도 했다.

요즘은 예능이 대세다. <꽃보다 할배>의 대선배들을 보며 내 생각의 벽을 부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아주지도 않는 고집스런 나의 소신도 이제는 무겁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집안도 가볍게, 내 몸도 가볍게, 나의 생각도 가볍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체면과 체통도 적당한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에 매여 꼼짝 못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 무엇이 두려우랴. 설 연휴에 시작되는 딸 다은이와 함께하는 예능프로그램이 기대된다. 오랜 망설임 끝에 푹! 푹! 털고 떠나 보는 새로운 길이다. 10년 후, 20년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안녕, 클래식》

만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클래식음악가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 대개 쉽게 들리는 국내 가요나 익히 들어온 팝음악은 익숙한데, 클래식 음악을 대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이해하는 책해야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미안하기도 하나 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음악이 클래식임을 알게 되면 재미를 느끼게 된다.

‘반짝 반짝 작은 별’ 동요는 본래 모차르트가 1778년 파리 여행 중에 들은 프랑스 민요 ‘아, 어머니 들어주세요’를 변주곡 C장조로 작곡한 작품이다. 중학교 시절 수업 시작 음악과 종료 음악으로 들어왔던 ‘엘리제를 위하여’는 베토벤의 작품이며, ‘소녀의 기도’ 등도 폴란드 여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바다르체 프스카의 작품이다. 이처럼 우리는 태고 음악 때부터 중고교까지 클래식의 흥수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

처럼 힘들어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음악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이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정보 또한 어렵게 이해되기 때문이었다.

최근 출간된 만화책 《안녕, 클래식》은 이러한 어려움을 쉽게 극복시켜 주는 유용한 책이다. 이 책은 1600년대 바로크음악의 전설들인 비발디, 바흐, 헨델로부터 음악의 도시 빈의 거장들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프랑스의 베를리오즈와 비제, 러시아의 차이콥스키와 림스키코르사코프, 이탈리아의 로시니, 베르디, 푸치니를 거쳐, 1900년대 초 파리의 음악가인 드뷔시에 이르는 30명의 음악가 이야기를 만화로 설명해준다.

만화 또한 《천하무적 흥대리》에서 보 여주었던 작가의 창작방식, 즉 간결한 설명과 뚜렷한 주제 전달로 어려운 클래식의 핵심과 흥미로움을 쉽게 이해시킨다.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 중 항상 5위 내에 선정된다는 ‘사계’는 안토니오 비발디의 대표곡이다. 하지만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성직자이자 작곡가이며 바이올린 연주가였고, 4악장의 형식을 처음으로 깨고 3악장 형태의 협주곡을 완성한 혁신가였다. ‘사계’이 외에도 40여 편의 오페라와 500곡 이상의 협주곡을 탄생시킨 음악가로 음악의 도시 빈에서 일생을 마감한다.

에스테르하지 가문에서 오랜 세월 궁중악장을 하던 하이든이 남긴 고향곡 중 45번째 작품 ‘고별 고향곡’의 뒷얘기도 흥미롭다. 에스테르하지 궁전은 공작 니콜라우스의 여름휴양지였는데, 공작이 10개월이 지나도록 본궁으로 복귀를 하지 않아 연주자들의 고통이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연주자들의 가족 대부분이 공작의 본궁인 에이젠슈타트에 있었기 때문에 연주자들 또한 10개월 이상 가족과 생이별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을 공감한 하이든은 연주자들이 각자의 연주 파트가 마무리되면 한 명씩 퇴장할 수 있는 고향곡을 작곡했고, 결국 연주자들이 모두 퇴장한 음악회를

보면서 니콜라우스 공작이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저자의 이러한 뒷이야기는 클래식이 지닌 역사성과 그 흐름을 쉽게 이해시키고 음악에 대한 애착 또한 갖게 하는 흡입력이 있다.

베토벤에 이르러 드디어 왕족이나 귀족에 하인처럼 귀속되어서 음악을 해야 하는 음악가들의 신분이 대중들을 위한 작품의 작곡가와 연주자로 독립되었으며, 31세에 요절한 슈베르트와 누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30대 말에 급사한 멘델스존 역시 당시의 천재적인 음악가였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야기로 기억하면 세계사도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클래식도 그 시대의 숨은 뒷이야기로 음악의 근원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흡수할 수 있다. 클래식은 비타민처럼 우리에게 역사와 시대를 이해시키는 보약과 같다. 흥윤표 작가의 만화로 만나면 더 그렇다.

흥윤표 지음·그림 |
디자인하우스 펴냄

